

CITY OF ANGEL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CITY OF ANGEL>

기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2018년 10월 17일 발행 / 인쇄 : ㈜케이프린텍

발행기관 : ㈜엔젤클럽

발행인 · 편집인 : 이호경

디자인 : ㈜솔트커뮤니케이션즈(최종대)

(주)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aeguangel@naver.com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CITY OF ANGEL

AUTUMN, 2018, Vol.1

CITY OF ANGEL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AUTUMN, 2018, Vol.1





스파크에 꽃하다!

신개념 테마파크쇼핑몰 동성로태왕스파크

런던아이의 추억, 풍피두센터의 감동, 헵파이브의 쇼핑문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감성의 랜드마크!
이제 동성로에서 만납니다

MD Theme 디자이너몰 · 브랜드타운 · 스트릿몰 · 토털뷰티 · F&B에비뉴 · 퓨전푸드몰 · 메디컬 · 케어존 · 게임월드 · 락스포츠 · 루프탑 바 · 어뮤즈코너 · 스파크PB몰

※본 CG에 표현된 분장물의 건물외관 조경 등은 실제 시공시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3자의 사진 CG 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MD 구성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관 약도	
동대구역 환승센터	동대구역지하철역
동부소방서 대구광역시(대우)센터 대구광역시(대우)센터	태왕스파크 홍보관
	*대백아울렛
	MBC네거리

현장 약도	
태왕스파크	대우시청
중랑대로	공평네거리
2.2871년 중앙광원	국세보세문물 기념공원
동성로	대우공영시설 충무로사거리
대우 백화점	한국은행
다산문구	상역지구대
	경대병원

분양문의: 053-766-0707

수익사명: M 대한토지신탁(주) | 태왕 | 주:도원투자개발



당신은 샤갈입니까?

인터불고 골프장을 품은 신개념 타운하우스
샤갈의 마을이 곧 귀하를 찾아갑니다

유럽에서 온 테라스하우스

샤갈의 마을

- Townhouse | 대세로 떠오른 상류주택의 새로운 트렌드
- Fairway Spa | 페어웨이를 감상하는 레저형 홈스파
- Terrace | 탁트인 전망 여유로운 휴식 즐거운 파티
- Healing | 인터불고 골프장을 품은 초록빛 삶터
- Duplex | 생활공간과 개인공간 분리 복층디자인

분양문의: 053 795-1700

시행: 하나자산신탁 | 시공: 대영건설(주)



타운하우스(TOWNHOUSE)란?

근대 영국귀족들이 도심 근교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생활양식과 에티켓으로 차별화된 신분을 표시했던 대저택이다. 현대에 이르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상류주택의 주거형태로 새롭게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주거문화의 새로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샤갈의 마을

시티 오브 엔젤(City of Angel)

얼마 전 방영된 ‘알쓸신잡 3’에서 이탈리아 피렌체의 ‘인노첸티 고아원(Ospedale degli Innocenti)’이 소개되었습니다. 피렌체의 랜드마크인 두오모(Duomo)성당 지붕을 만든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이 고아원은 건물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며, 수많은 이야기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이 고아원은 600년을 넘어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연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식으로 보존되고 있어 찾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날로그적인 보존물은 은행 개인 금고처럼 만든 서랍장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맡겨두면서 남겨놓은 증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올 것을 기약하고 남긴 것들이지요. 배냇저고리의 일부, 그리고 반 정도 깨어진 메달류 등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저마다 사연을 갖고 있는 이 증표들은 마치 살아서 그동안의 많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자료인데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성장해 지금 연락이 되는 사람들의 영상이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고아원이 있었지만, 이처럼 이야기와 사연을 보존하고 있는 곳은 드물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기록물들이 바로 이탈리아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물 하면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지요.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세계가 놀랄 기록유산입니다.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은 요즘 더 해졌습니다. 정보가 많아진 만큼 오히려 더 정제하고 가려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엔젤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엔젤들의 이야기가 릴레이과정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엔젤이 걸어온 길이 그동안 정제되어 우리가 만든 이 매거진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가을부터 엔젤클럽매거진이 ‘시티 오브 엔젤(City of Angel)’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도시’는 철골이나 벽돌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이야기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우리들이 만든 수많은 콘텐츠는 엔젤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엔젤의 가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시, ‘시티 오브 엔젤’에 엔젤님들도 시민이 되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의 이야기도 좋습니다. 언제라도 이 도시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도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롤랑조제의 명화 ‘시티 오브 조이’가 생각납니다. 고인이 된 페트릭스웨이지의 인생작품이기도 하지요. 미국인 의사 맥스(페트릭스웨이지 역)가 인생의 의미를 잃고 인도 캘커타의 ‘시티 오브 조이’라는 마을에 왔지만, 결국 그 곳에서 삶에 대한 긍정과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맥스가 한말이 인상적입니다. “여기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제야 인생을 깨달았어요.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티 오브 엔젤’에 오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지역사랑이 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 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남고 싶어질 것입니다. 대구는 엔젤이다! 감사합니다.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CONTENS

Angel-with-us

10 SPECIAL 엔젤이 미래다

10년 후 엔젤의 모습은!
대구의 미래! F5(FUTURE 5)를 만나다
엔젤의 미래는 우리에게!

26 지방자치와 시민엔젤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30 ANGEL LIFE

다이아몬드 엔젤 : SL(주) 이충곤 회장
기업탐방 : 이동경 엔젤부회장(㈜도원투자개발 대표)
UNSUNG ANGEL : 김재홍 엔젤부회장(대호약품 대표)
대구맥주, 엔젤비어 : 문준기 엔젤(대경맥주 대표)
글로벌 엔젤 : 서성도 엔젤(독일SEO밸런스운동센터 대표)

50 엔젤 인문학 : 엔젤덕후

52 대구시공무원노조 엔젤의 날개를 달다

54 시민엔젤 엔시오

58 엔젤, 조현우를 만나다

60 핫플레이스 엔젤존

62 엔슬축득(엔젤들의 쓸데 있는 축구 이야기)

70 나의 엔젤입성기 : 표병관 엔젤

74 ANGEL & PEOPLE(대구FC엔젤클럽 동정)

80 대구FC엔젤클럽 명단

88 대구FC엔젤클럽 가입안내 및 후원금 자동납부 신청서

90 자동이체 후원방법

Daegu FC Report

94 달구벌 브리핑

98 국세청과 함께하는 세금 골든벨

100 대구FC, FA컵 4강 진출

102 '달려라 하니' 한희훈 100경기

Half time talk

108 제16회 대구오페라축제

112 대구오페라 예술감독 최상무

114 보카주니어스 홈구장 탐방기

118 보험특집 :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활용한 위험관리

123 기념엽서 /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 후원금 안내





Angel-with-us

엔젤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2018.08.30 엔젤번개팅 디퍼스트

10년 후 엔젤의 모습은!

전용구장 증축, 관중 점유율 1위 '축구의 도시, 대구!'

엔시오 1만 시대, 엔젤 혼(魂)살아 있는 '시티 오브 엔젤'

엔젤매거진 가을호는 대구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앞두고 특집으로 대구FC와 엔젤클럽의 미래를 그려봤다. 대구FC의 경우 올해 하반기 들어 젊은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면서 상승세를 달렸고, 엔젤클럽의 경우에도 30-40대의 젊은 엔젤들이 이사진에 가세하면서 전체적으로 활기를 띄고 있다. 이들을 만나 인터뷰 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10년 후 대구FC와 엔젤의 모습을 예측해 봤다.



2018년 10월 공정률 88% 넘어선 대구축구전용구장! 대구의 미래다.

2028년 3월 K리그1 대구 개막전! 한 달 전부터 대구시내가 들떠 있었다.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대구축구전용경기장은(엔젤에게는 '엔젤아레나'로 불린다) 지난해 증축을 마쳤다. 그동안 관중이 늘어나 기존 1만2천석 규모로는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어, 지난해에 3천석을 증축했다. 엔젤아레나는 최근 10년 동안 관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경기장이었다. 평균 1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찾았으며, 비중 있는 경기는 만석이였다. 엔젤에서 추진한 '만원의 만원'(월 만원으로 축구장을 만원시키자는 캠페인)이 확실히 결실을 맺었다. 축구관람에도 지역 사랑이라는 시민정신이 합쳐지니 호응도가 높았다. 엔젤클럽에서도 기존 엔젤확대와 함께 엔시오 1만명 시대를 준비해왔고, 2018년 시작부터 해마다 1,000명씩 늘어 이번에 1만명을 달성하게 됐다. 개막전 당일 최초 엔시오 가입자와 1만번째 엔시오가 참석하는 기념행사가 마련돼 있다. 엔시오는 FC바르셀로나의 소시오처럼 수많은 엔젤 덕후를 만들어 냈고, 지금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엔시오 10주년을 맞아 팀 전력도 상승세다. 단체로 중국 전지훈련을 함께 다녀온 엔젤클럽 회원들은 올해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를 자신했다. 엔젤매거진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엔젤회원들이 '이번에는 외국으로 원정가자'를 희망했다. 2018년 주축을 이뤘던 젊은 선수들도 이제는 어느 덧 노장이 됐다. 그 사이 대구는 '선수화수분'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많은 선수들을 배출했다. 신구의 조화가 이뤄지며 최근 10년 동안 가장 친화적인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말그대로 가족같은 팀이다. 오히려 일부 선수들 가운데서는 가족보다 더 좋다는 말이 흘러 나올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좋은 선수들도 잇따라 나타났다. 조현우선수를 시작으로 국가대표들이 잇따라 배출됐으며, 유럽에 진출한 레전드도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엔젤매거진에서 엔젤과 인터뷰 했던 'F5' 모두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며 기대에 부응해, 엔젤들은 지금도 '영웅담'처럼 그때의 이야기를 되 뇌이곤 한다. 또다른 전통은 대구에서 스타로 성장한 선수들이 팀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을 대구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지금도 대구에서 마지막을 보내려는 스타급 노장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돼 있다. 이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물론 헌신적인 플레이와 생활태도로 대구FC만의 고유한 특징을 만들어 내고 있다.



대구의 미래! F5(Future 5)를 만나다

선수단 분위기 최고, 대구의 미래는 밝다!
정우재, 홍정운, 김대원, 정승원, 최영은 한 목소리

대구FC의 미래는 밝다. 젊은 선수들이 화수분처럼 쏟아진다. R리그(리저브리그)를 통해 성장통을 겪은 젊은 선수들이 마침내 K리그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하지 않다. 보습보습 앓되어 보여도 막상 대화를 해보면 놀랄 만큼 성숙하고 단단하다.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는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 때론 겸손하고, 때론 깊이 있다. 신체도 그렇지만 마음이 건강하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념도 강하다. 이제 이들이 걷는 길을 또 다른 '미래'들이 따라올 것이다. 월드스타가 된 조현우 역시 2013년 입단 시에는 대구의 미래였다. 미생이었다. 조현우가 그 꿈을 이루고 '완생'이 되어 후배들에게 릴레이 하듯, 이들도 또 다른 '미래'를 릴레이 할 것이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지난한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꽃의 아름다움에는 '존재의 강건함'이 스며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어난 꽃 같은 대구FC의 F5(Future)를 엔젤이 만나봤다.



▶ 정우재

▶ 홍정운

▶ 최영은



▶ 김대원

▶ 정승원



숙소에서 만난 선수들과의 달콤한 데이트

대구스타디움을 멀리 바라보고 있는 대구육상진흥센터에 엔젤클럽의 F5, 김주성 부회장(광개토병원장), 박동규 부회장(한국디자인모형 회장), 정영준 상임이사(다원아یدی 대표), 안홍운 상임이사(YH바이오사이언스 대표), 김일권 엔젤(삼성생명 부장)이 뒀다. 집행부에서는 이호경 회장,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강정영 홍보이사는 취재차 자리했다. 선수들을 만난다는 설렘에 인터뷰 전부터 분위기가 들떠있었다. 센터를 한 바퀴 돈 후에야 마음이 진정됐다.

엔젤들은 인터뷰 내내 감동했다. 이들을 통해 선수들이 엔젤클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엔젤은 때로는 '든든한 뺑'이었고, 또, '삼촌, 고모, 이모'였으며, 때로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다. 평소 선수들을 아들, 딸처럼 생각하는 엔젤의 마음과 '통(通)'한 것이다. 깃발을 흔드는 엔젤의 모습에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럴수록 선수들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다. 엔젤이 가는 길도 좀 더 명확해졌다.



예비 국대 정우재, 축구는 내 사랑 한 번도 축구 포기한 적 없어

먼저 엄태건 상임 부회장이 정우재 선수에게 ‘사심’을 털어놓으며 즐거운 인터뷰를 시작했다. 야구를 좋아했던 딸이 최근 대구스타디움에서, 아빠 몰래 ‘정우재 선수’를 응원하러 왔다가 ‘딱’ 걸렸다는 것이다. 세징야의 양아버지를 자처하는 엄 부회장이었지만, 딸의 ‘우재’사랑에 은근히 질투가 난 모양이다. 하지만, 정우재에 대한 순애보는 엄 부회장이 더 진했다. 엄 부회장은 정우재 선수를 바라보며 “대구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이자 스타”라며 꼭 국가대표의 꿈을 이루라고 했다.

정우재는 지난 3월 발간된 ‘엔젤매거진 봄호’에 가장 국가대표에 근접한 선수로 꼽혔다. 엔젤의 기대처럼 그는 요즘 국대급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온순해 보이기만 한 그의 뒤에는 테스트를 거쳐야 했던 힘들었던 과거가 있었다.

안홍운 상임이사는 정우재선수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처럼 사랑받게 됐는지 궁금했다. 정우재는 담담하게 지난 시절을 돌아봤다.

“어려움을 극복했다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축구를 그만둔다고 생각해본 적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축구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축구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담담한 정우재의 대답에 엔젤의 가슴이 먹먹했다. 축구는 곧 정우재의 인생이었던 것. 안 이사는 이어서 K리그 챌린지(2부) 시절 정우재가 고비 때마다 대구의 발목을 잡았던 충주 험멜 소속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상대팀이었던 대구로 입단한 느낌이 어떤지 물었다.

정우재는 “당시 대구는 2부에서 승격을 준비하는 팀이었고 충주는 어려운 팀이었다”며, “별생각 없이 소속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다”고 했다. 실제로 한때 테스트까지 받아야 했던 그에게 대구는 처음으로 2년 계약을 한 팀이었다. 처음에는 잘 뛸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적응을 잘했던 것 같라며 감사해했다.

든든한 수비의 핵 홍정은 선수들 가족 같은 분위기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엔젤들은 마치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지난 중국 쿤밍에서 전지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러 간 엔젤 방문단은 홍정은 선수를 잊지 못한다. 방문 마지막 날, 귀국을 앞두고 몸이 좋지 않은 홍정은 선수를 병원에 내려주고 대구 행 비행기에 올랐기 때문이다. 자식 두고 온 부모 마음처럼 귀국길이 내내 편치 않았다고 한다. 그랬던 홍정은 선수가 성장해 지금은 어엿한 대구 수비라인의 기둥이 되어 있어 엔젤 들은 여간 흐뭇하지 않다.

얼마 전까지 부산에서 근무했던 김일권 엔젤은 홍정운이 부산 출신인 것을 기억하고, 그의 대구 생활이 궁금했다.

“부산, 서울, 경기도 등등 여러 곳에 있어봤지만, 대구의 여름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더위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홍정운의 ‘대구’는 더위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제 더위는 그의 원군이 됐다. 대구 더위에 익숙한 터라 체력에는 자신이 붙은 것이다. 대구와 맞서는 상대는 홍정운과 함께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대구 더위’와도 싸워야 했다. 더구나 대구 더위에 익숙해지니, 대구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했다. 김일권 엔젤은 큰 키에서 내리 쏘는 홍정운의 헤더가 인상적이었다. 비법을 물어봤더니 재미있는 답이 나왔다. 바로 ‘세징야’였다.

“세징야의 킥이 워낙 좋아요. 머리에 딱 갖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세징야 역시 제가 골을 넣으니 자기도 공격 포인트 올라간다고 고마워합니다. 서로서로 그렇죠.”

서로 ‘그렇단다’. 뭐가 그럴까... 겸손하면서도 동료애가 느껴지는 홍정운의 대답에서 요즘 대구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대인마크가 뛰어난 홍정운의 능력도 김일권 엔젤이 궁금한 내용 중 하나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홍정운은 좀 전과는 달리 사뭇 진지했다.

“경기 1주일 전 훈련할 때부터 내가 말아야 할 상대선수에 대한 영상자료를 매일매일 보고 연구합니다. 감독님과 사장님이 상대선수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것을 숙지해서 경기에 들어가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장하는 선수의 비법은 따로 없다.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분위기 메이커 최영은 파이팅은 ‘나의 습관’ 조현우로부터 많이 배워

홍정운과 함께 쿤밍에서 엔젤의 기억에 각인된 선수가 있다. 바로 성암산에 서식하는 ‘인간 고라니’ 최영은이다. ‘고라니’는 경기 중에 지르는 함성이 ‘고라니’ 소리 같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최영은은 중국 쿤밍 전지훈련지에서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단번에 엔젤의 눈에 들었다.

목소리 하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은 엄태건 부회장은 평소에 낮을 가릴 정도로 수줍은 최영은의 어디에서 그런 파이팅이 나오는 지 궁금했다.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파이팅’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축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싸우팅’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습관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영은이 넘어야 할 산은 월드컵스타 ‘조현우’다. 박동규 부회장이 ‘최영은의 강력한 경쟁자’ 조현우 선수 이야기를 꺼냈다.

“현우 형은 훈련에서부터 생활까지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몸관리 방법, 생활패턴, 골 막을 때의 상황, 그리고 항상 제 플레이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조현우 선수 대신 골문을 지킨 후 대구의 승률은 놀라울 정도다. 여기에 대해서도 최영은은 겸손했다.

“제가 잘 해서 이겼다고보다는 형들이 더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실수로 골을 먹더라도 형들이 더 많은 골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고맙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현우 형과의 경쟁관계는...”

최영은은 경쟁자로서의 ‘현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마도 조현우가 출전 한다면 ‘고라니’ 처럼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사히 여기고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하반기 최고 스타 김대원 친구 ‘이승우’ 나에겐 최고의 자극제 소속팀 최선 다하면, 대표팀 기회도

엔젤들이 만나고 싶은 선수 중 한명이 바로 김대원이다. 정영준 이사는 김대원 선수의 솜씨에 반했다. 비결을 물었다.

“일단 선수라고 하면 슈팅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술적 차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없으면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볼이 오기 전부터 주눅이 들면 좋은 솜씨를 하지 못 합니다”

김대원의 말처럼 ‘자신감 넘치는 그의 솜씨’는 골문을 벗어나도 시원시원하다. 엔젤도 그게 좋았다. 조심스러웠지만 정영준 이사는 이승우 이야기도 꺼냈다. 김대원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승우는 연령별 대표로 함께 뛰었던 친구입니다. 올림픽은 물론 성인 대표팀으로 월드컵에서 뛰었으니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했고,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으니 솔직히 부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승우가 잘 됨으로써 동기부여가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엔젤들은 최근 김대원의 플레이를 보고 행복해 한다. 당연히 도쿄 올림픽의 대표감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올림픽이란 게 욕심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하다보면 한번쯤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대의 나이라고 생각하기엔 훌륭한 답이었다. 실제로 김대원의 카톡 프로필 메시지는 감동적이다. ‘어려운 시간에 감사하라. 그 시간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그의 무한한 성장을 기대해본다.



아이돌 축구스타 정승원 인기에 부합하는 실력 갖추 터 팀 승리 기여하는 선수 되고파

옛된 얼굴에 강단 있는 선수가 어디 김대원 뿐일까. 김대원하면 정승원이고, 정승원하면 김대원이다. 최근 두 선수의 이름을 딴 ‘대승기원’카드가 대세다. 이번에는 김주성 부회장이 나섰다. 김 부회장은 멀티플레이어로서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아이돌 뽐치는 얼굴에 탄복했다. 이 또한 스타마케팅의 하나며 관중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멀티플레이어로 실력도 뛰어나지만, 얼굴 또한 미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FC서울(9.16)과의 경기에서 황현수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던데 실제 누가 더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정승원 대신 다른 선수들이 입을 모았다. ‘누가보나 정승원’ 이란다…. 맞다 누가 봐도 정승원이다. 정승원선수도 사람인지라 그런 인기가 싫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 할수록 엔젤들은 정승원의 마음이 더 ‘잘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솔직히 기분이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경기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집니다. 그게 팬들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팀 승리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정승원은 푸른 피치위에 서면 쉴 새 없이 뛰다. 그 자체가 아름답다. 김 부회장은 그런 그의 체력도 궁금했다.

“체력을 유지하는 별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대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뛸 수 있고, 힘들다 생각하면 뛰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가 저를 더 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김 부회장은 정승원의 마음가짐에 박수를 쳤다. 동시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었다. 현재 김 부회장 병원에는 산소탱크가 마련돼 있다. 귀한 장비다.

“호날두도 다치면, 산소탱크에서 치료한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라는 김 부회장은 “몸 속에 산소량을 수십 배로 높여서 더 많이 뛰고 편하게 뛸 수 있다”며 “선수들이 경기한 다음날 우리 병원 산소탱크를 이용하면 회복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필요하면 언제든 사용하라고 했다.



‘엔젤은 대구의 힘’ 늘 감사하고 든든해 선수들 한 목소리에 엔젤 진한 감동

인터뷰가 계속되는 동안 이호경 회장은 솔직히 궁금했다. 과연 선수들에게 ‘엔젤은 어떤 존재일까?’

홍정운 선수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답했다. ‘든든한 뺑’ 이란다. 정우재 선수는 “감사드립니다. 매년 후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선수들은 엔젤로부터 매우 큰 힘을 얻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든든합니다.”고 했다. 엔젤의 마음이 통한 것이다.

최영은선수는 엔젤의 깃발에 언제나 힘을 얻는다고 한다.

“경기장에서 깃발을 흔들며 변함없이 응원하는 걸 보면서, 골 먹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최영은 선수의 이 말에 엔젤은 곧바로 깃발을 추가로 제작했다. 상주, 포항 원정 준비에 나섰고, 추석 앞두고 대대적인 ‘엔젤원정대’를 꾸렸다. 늦바람이 무서웠다. 선수들의 감사는 엔젤을 더 춤추게 했다.

김대원 선수도 할 말이 많다.

“선수 대부분 엔젤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진심어린 감사의 표시였다. 정승원 역시 부모 같다는 말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했다.

마지막으로 홍정운선수가 남긴 말은 엔젤은 물론 대구FC의 미래와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올해 우리 팀 분위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학교, 고, 대학교 등 많은 생활을 해봤지만, 요즘처럼 가족같은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어린선수들은 물론 고참 선수들도 모두 마음이 하나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간다면 내년에는 시즌 초반부터 상승세를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지만 엔젤들의 가슴에는 여운이 남았다. 애뒀하던 선수들의 뒷모습이 어느새 든든해졌다. 대구의 미래였다. 대구FC 파이팅! 엔젤 파이팅!



엔젤의 미래는 우리에게!

영파워 오남매- 엔젤 성장동력! 대구FC는 나의 팀, 응원은 뜨겁게!

'독수리 오형제'가 울고 갈 '엔젤 오남매'가 떴다. '지구'는 독수리에게 맡기고 지구 보다 더 높은 천상에 존재하는 '엔젤계'를 지키려고 그들이 왔다.

최근 대구FC의 영건들이 팀 상승세의 기폭제가 되듯이 엔젤에서도 30대에서 40대의 젊은 천사들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이상섭 엔젤(조아전자<주>대표)을 시작으로 김상희(데상트골프 이시아폴리스점 대표), 양승혁(인문사 대표), 이민희(키친씨 대표), 남규동 엔젤(<주>디에이치지 대표)까지 다섯 명이 잇따라 엔젤의 옷을 입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임원역할 까지 맡으면서 엔젤 전체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번 호 '엔젤이 미래다'의 특집으로 최근 엔젤 가입에 이어 이사진으로 합류한 영파워 5명의 엔젤을 엔젤사무국에서 만나봤다.



김미숙 엔젤

이상섭 엔젤

대부분, 한 때는 'K리그 재미없어' 대구FC무관심
엔젤 가입 후 '나의 팀', 열혈 팬으로 변신

가장 먼저 엔젤 사무국을 찾은 영파워는 남규동 엔젤이다. 앞서 경기에 아내 전해심 씨는 물론 창연(12), 건희(10), 건효(9), 건울(7), 등 네아이와 함께 온 등직한 아빠이기도 하다. 외모에서부터 남성다움이 물씬 풍긴다. 시원시원한 인사로 첫 문을 열었다. 이어 이상섭, 김상희, 양승혁, 이민희 엔젤이 잇따라 사무국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모두 김미숙 엔젤이 추천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엔젤에 가입하기 전에는 'K리그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섭 엔젤은 "엔젤이 되기 전에는 국내 K리그는 아예 안 봤다"고 했고, 포항이 고향인 이민희 엔젤도 어린 시절 홍명보, 김병지, 황선홍 등을 보며 포항스틸야드를 내 집처럼 다녔지만, 그동안 해외 축구리그는 몰라도 K리그는 관심 밖이었다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스페인 명문 구단 FC 바르셀로나의 캠프를 방문한 남규동 엔젤 역시 K리그는 남의 이야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심장 속 피는 뜨거웠다. 막상, 엔젤이 되고, 축구장에서 대구FC 선수들을 보자, 만나 얘기 같았던 '축구'가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나의 팀', '우리 팀'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지금까지 축구에 관심이 없었다는 김상희 엔젤은 "예전에 공짜 표가 생겨 대구스타디움에 찾아왔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며 "그런데 막상 엔젤의 일원으로 작게나마 시민구단을 후원하게 되니, 마치 대구를 위해서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대구FC가 내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 애썼다"고 말했다.

이상섭 엔젤도 엔젤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완전 달라졌다고 했다.

"마치 '구단주'가 된 느낌 같습니다. 시민구단이란 게 원래 시민이 주인 아닌가요. 그렇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경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이상섭 엔젤의 말에 이민희 엔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에는 김미숙 엔젤의 추천으로 사람보고 들어왔지만, 실제로 후원금을 부담하고 보니까.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내 팀이 생긴 기분' 이 들었다"며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보니까 더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더라"고 했다.

양승혁 엔젤도 직관(직접관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대구FC가 잘한다는 소리 못 들었다는 그는 "경기장 가서 직접 보니까 다르더라. 지금은 경기가 너무 재미있고, 팀이 좋아진 것을 보니 너무 좋다. 가끔 이기지 못해도 재미있다. 아직 선수들 이름을 잘 모르고 있다. 점점 외우고 알아가고 있고, 애착도 가고 있다."며 자꾸 찾아보게 된다고 했다.



남규동 엔젤



김상희 엔젤

젊은 세대, 가족에 대한 애정 남달라 가족과 함께 경기장 찾아 응원하며 소중한 추억 만들어

젊은 세대답게 가족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특히 네 아이 아빠인 남규동 엔젤은 평소 회사 업무로 가족과 함께 못한 것을 늘 아쉬워했다고 한다. 그러다 첫 번째 찾은 경기가 바로 대구FC와 수원삼성과의 경기였다. 이날 대구FC는 골 잔치를 벌이며 9년 동안 이겨보지 못했던 수원에 4 대 2로 대승을 거뒀고, 아내와 함께 가족 모두 신나는 추억을 만들었다.

“평소 가족과 함께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조현우선수를 보기위해 아이들이 경기장을 오려했지만, 막상 와서 함께 하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빠로서 기분이 흐뭇했습니다.”

남규동 엔젤은 내년이면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닐 아이들을 위하여 올해가 가기 전에 조현우선수와 함께 사진 찍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주원(5살), 시원(15개월)이 두 아들을 둔 양승혁 엔젤 역시 가족과 함께 대구FC 경기를 찾는다. 젊은 세대답게 평소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다. 그래서 양승혁 엔젤도 ‘직관은 가족과 함께’다. 아내 윤보미 씨와 상의해 9월30일 열린 포항 원정도 가족과 함께 가을 여행으로 잡았다. 대구FC도 응원할 겸 동해 바닷가도 다녀왔다.

다섯 엔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입한 이상섭 엔젤 역시 시간이 되면 늘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는다. 그의 아내 정미경 씨와 10살 쌍둥이 무성·병성씨도 엔젤에겐 익숙한 얼굴이다. 김상희 엔젤은 언니 김원희 동경 투어대표를 엔젤로 추천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엔젤.’ 그래서 더 화목하고 즐겁다.

한편 이민희 엔젤은 축구를 좋아하는 아내 엄소현 씨와 딸 이현이와 함께 응원하러 가고 싶지만, 아직 이현이가 14개월 밖에 되지 않아 나들이가 조심스러워 아쉽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다. 앞으로 이현이가 크면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기로 아내와 약속했다.



이민희 엔젤



양승혁 엔젤

뜨거운 함성과 응원! 선수들도 춤춘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엔젤 응원문화 필요

‘응원의 물이 달라졌다’ 모 엔젤이 던진 이야기다. 실제로 이민희 엔젤은 ‘잃어버린 슬리퍼’로 유명하다.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민희 엔젤은 편한 마음에 슬리퍼를 신고 왔다가, 경기에 홀딱 빠져서 슬리퍼를 잃어버릴 정도로 열혈응원을 했다. 그리고 그날 엔젤이 됐다. 남의 일 같던 대구FC가 이제 자신의 가슴 속으로 ‘혹’ 들어와 버렸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홈구장의 응원에 아쉬움이 있다. 응원전체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흐름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부젤라 응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일부 팬들은 부부젤라 소리를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며, 상대 공격시 ‘부부젤라 타임’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스포츠라는 것이 뭔가 탄력으로 하는 것 같다”는 이민희 엔젤은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진짜 파이팅하고 으쌰으쌰 열정적으로 응원하면 선수들도 탄력을 받아 힘이 날 것”이라며 앞으로 탄력적인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 했다.

야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이상섭 엔젤은 “야구는 응원 때문에 경기장을 찾는 사람이 많다”며 “축구도 축구만의 특성을 살려 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요즘 축구생각에 빠져있다는 김상희 엔젤 역시 응원에 맛을 들었다.

“예전에는 경기장을 찾아도 멍멍송송했는데 요즘에는 엔젤과 함께 응원하니 함성도 지르고 박수도 치면서 마음이 후련합니다.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데 축구 생각 밖에 나지 않아 고민 이예요.”

양승혁 엔젤은 전북, 수원 등 타 팀의 응원에 주목했다. 대구로 원정와서도 일사분란하게 응원하는 것을 보면 홈팬으로 뭔가 아쉬움이 남는 다는 것이다. 엔젤에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응원도구도 준비해 일반인들과 함께 대구만의 응원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응원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엔젤확대로 이어졌다.

25년 동안 축구동호회 활동을 한 남규동 엔젤은 “프로 선수 간의 기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자신감인 만큼 칭찬하고 응원해서 사기를 북돋우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엔젤 가입 후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며, 엔젤 응원을 실천하고 있다



호텔 인터볼고 더 파크빌리지 잔디 광장에서 화이팅을 외치는 엔젤 오남매와 김미숙 엔젤.

선배 엔젤들 열심히 따라 갈 것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엔젤응원에 적극 참여

영파워 엔젤들은 이외에도 내년엔 선보일 대구축구전용구장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리고 자신들의 엔젤입성과 함께 대구FC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스스로 행운아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도 했다. 이를 입증하듯 홈경기는 물론 원정도 나서며 젊음을 불태우고 있다.

“젊은 엔젤이 많아지면 그 열기가 선수들에게도 전달 될 것”이라는 이상섭 엔젤은 “엔젤이건, 엔시오 이건 좀 더 젊은 층에 릴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젊은 엔젤과 엔시오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응원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이민희 엔젤은 “아직 젊은 만큼 우선 역할을 주면 적극적으로 따라갈 것”이라며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시간이 되면 응원하고 특히 젊은 친구들을 많이 참가시키고 싶다”고 했다.

앞서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상희 엔젤은 “무조건 엔젤에 가입하라는 것 보다 경기장에서 대구FC와 엔젤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며 “젊은 엔젤로서 주위사람은 물론 각종 모임에 대구FC와 엔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선 경기장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작은 일부터 실천 하겠다”고 했다.

양승혁 엔젤 역시 “경기장에서 재미있게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가 홍보되어서 축구장 가면 재미있더라는 소문 만 나면 관중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며 “엔젤 역시 이런 응원문화를 경험하고 애착을 느끼면 엔젤에 가입하고 싶은 느낌이 들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파워 엔젤답게 시원시원한 남규동 엔젤은 “젊은 엔젤들은 회원이 되고 단체에 가입하면 소속감이 남달라지고,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처음에는 자세히 모르고 가입했지만, 한번 엔젤이 된 만큼 제대로 하고 싶다”고 앞으로 가족과 함께 적극 활동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모인 영파워 엔젤은 다음날 예정된 대구FC의 신예 다섯 명의 영건과의 인터뷰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여러 일정으로 인해 아쉽게 만나지 못하고 지면으로 대면하게 됐다. 대구FC와 엔젤의 영파워! 우리들의 미래는 밝다.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엔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바쁜 일정 속에 엔젤의 시간을 내어주신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만나러 나섰다. 화사한 의상과 환한 웃음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던 배 의장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엔젤을 잘 알고, 이미 온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엔젤에게 하고 싶은 말,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라던 배의장과의 진심 토크 속에서 엔젤의 위상과 책임을 또한번 실감한 시간이었다.

Q. 대구시의회 의장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A.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두 차례의 회기를 보냈고, 의회 내 공식 의정활동 참여와 의회를 찾아주시는 기관·단체 관계자분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시의회에 대한 애정 어린 고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의장으로서 참석해야 할 행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Q. 네. 역시 대구시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안 중에 대구FC와 엔젤클럽도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A. 물론입니다. 대구지역에 연고를 둔 대구FC가 시민구단으로 출발했던 만큼 시민들, 엔젤들의 힘으로 다시 비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우 선수 세계에 대구 알려”

Q.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즉 대구FC가 사실은 국내 최초의 시민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엔젤클럽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릴레이해서 대구 FC의 재정적 안정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문자립구단을 만드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축구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구단의 가치상승을 통해 대구의 도시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대구문화 심어줄 것”

Q. 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엔젤의 가치와 역할은 최근 조현우 선수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현우 선수처럼 ‘대구’를 사랑하는 선수 배출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월드컵 당시 독일 전 승리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현우 선수가 “대구시민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의장이 아니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위로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바로 시민구단과 엔젤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죠.

제2, 제3의 조현우선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빅 매치 때만 반짝 환호하다가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고 매 경기에 찾아와 뜨거운 응원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대구FC 선수들에게 ‘대구’의 의미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FC에 새로 입단한 선수들에게 대구시티투어를 해준다거나 대구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대구’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엔젤에서도 선수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대구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것은 대구축구전용구장인데요, 전용구장 전후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A. 대구스타디움은 아시는대로 종합운동구장으로 세계육상대회는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국내 프로축구 문화로 봤을 때는 흥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만7천석 규모의 넓은 경기장과 트랙으로 인해 경기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들어진 전용구장은 규모나 시설에서 가장 한국적인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중들은 좀 더 가까이에서 선수들의 다이내믹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선수들은 그런 대구시민의 응원을 받으면서 좀 더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용구장과 주변의 공원지구 등 대구 도심에 새로운 문화스포츠공간이 마련돼, 대구 도심 내에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Q. 감사합니다. 전용구장은 대구FC가 명문 시민구단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구장시대 엔젤클럽의 도약을 위해 의장님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A. 조현우 선수가 복귀하던 날 대구스타디움에 1만3천명의 관중이 입장했다고 들었습니다. 1만2천석 전용구장에 대구시민이 가득 차면 비로소 대구FC 창단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엔젤클럽은 민간주도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타 구단도 벤치마킹할 정도라고 하니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전용구장시대의 엔젤은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밖으로는 보다 폭넓은 저변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젤클럽에서 월 만원으로 경기장을 만원시키자는 ‘만원의 만원’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FC바르셀로나의 협동조합제도인 ‘소시오’와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엔젤 + 소시오’라고 해서 ‘엔시오’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서 250만 대구시민 모두가 엔젤과 엔시오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구시민,
의회
한마음으로
지원 할 터”

Q. 의장님 정말 엔젤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의장님 뜻대로 250만 대구시민이 엔젤과 엔시오가 되는 ‘시티오브엔젤’, ‘엔젤의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젤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제일먼저 엔젤여러분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FC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난 여름 너무 뜨거웠던 날씨까지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려운 대구가 엔젤클럽 덕분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 연말에 대구FC전용구장이 본격 가동되면 엔젤들과 대구시민들, 그리고 의회가 한 마음으로 지원하고 응원해서 우리 선수들이 더욱 더 기량을 뽐내고, 우리 대구시민들도 더 큰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스타디움에 가면 꼭 엔젤룸을 찾아 저도 엔젤과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의장으로서 더 큰 책임과 무게가 있을텐데 어떠시냐는 질문에 그녀는 시민일꾼으로 일하는 의회의장으로서, 또한 한 집안의 엄마로서 두 역할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집에서 엄마역할처럼, 의정활동도 크고 거창한 것보다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에게 더 다가가는 따뜻한 걸음으로 걸겠다고. 그녀의 온화한 카리스마처럼, 우리 의회도, 대구FC도, 엔젤클럽도 힘차게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28일은 엔젤에게 특별하다. 바로 1004명 엔젤을 달성한 날이기 때문이다. 반가운 얼굴이 있다. 이날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이아몬드엔젤(연 1,000만원 후원) 10호로 가입식을 가졌던 에스엘 그룹 이충곤 회장이다. 11월을 지척에 두고 지역 경제계 원로인 이 회장을 만났다. 온화한 모습에 뿌리 깊은 거목을 만나는 느낌이었다. 요즘 어려운 경기에 대해 걱정하자, 이회장은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말을 이어갔다.

최근 경기 어렵지만, 시장 다변화, 기술개발로 극복 축구도 마찬가지, 젊은 선수 육성으로 성장동력 마련해야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미·중 무역 갈등,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더 철저히 준비하고 이겨내면 그만큼 성숙될 것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말 같지만,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를 이겨냈을까? 잠시 흐르는 침묵 속에서 세월의 무게와 그 무게를 감당해 낸 리더의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에스엘 그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다변화와 기술개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축구 이야기가 나오자, 이 회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갔다. 가뜩이나 말끔한 얼굴에 소년의 모습이 묻어났다. 이회장은 실제로 경북중학교 재학시절 축구선수였다. 요즘 말하면 ‘원톱’,

즉 ‘센터포드’로 팀의 중심이었고, 리더십을 인정받아 주장까지 맡았다.

“당시 주위에 공을 곧 잘 차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끌고 경북(대구경북통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것은 지금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중학교 시절, 축구부 주장 경북대회 우승 이끌어 10여 년간 대구축구협회장으로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

마치 청소년시절로 돌아간 듯 이회장은 축구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이어 회사 경영과 한데 어우러졌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는 지혜를 축구에서 찾아보죠. 축구에서 공격도 중요하지만 단단한 수비가 먼저예요. 기업경영에서 단단한 수비란, 낭비를 줄이고 수익성을 확보하는 내실 경영입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수비에 치중한다고 골문을 잠그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내실 경영을 통해 비축한 자금을 미래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축구에서 수비를 단단히 하다 보면 언젠가 한번 기회가 오듯이, 경영자도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한마디로 ‘축구경영’이다. 대구FC 조광래 대표이사가 강조하는 철학이기도 하다. 조대표는 알려진 대로, 이회장의 대학(연세대) 후배다.

“요즘 대구FC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젊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키워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덕분에 시즌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들어 서서히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지요. 대구의 이름으로 월드컵스타가 된 조현우 선수가 좋은 사례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조광래 대표의 리더십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회장의 축구 인연은 계속 이어진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시축구협회 회장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구에서 치러냈으며, 2003년에는 국내 최초의 시민구단인 대구FC의 창단에 기여했다. 창단 당시 주주로 참여했던 이회장은 2014년 대구FC가 2부로 강등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자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최근 들어 접한 것이 바로 ‘대구 FC엔젤클럽’이었다. 바로 지역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였다.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인 이회장은 사회봉사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 2006년에 사재로 설립한 재단법인 서봉재단 출연금은 현재 300억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꾸준히 사회 환원을 실천해오고 있다. 축구와 사회봉사, 한 마디로 ‘엔젤이 추구하는 지역사랑의 정신’이기도 하다.

“지역의 젊은 기업인들과 시민들이 시민구단을 살려서 대구를 한 번 바꿔 보겠다고 나선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축구사랑, 지역사랑’의 정신인데, 제가 빠질 수 있나요.”



대구축구전용구장, 축구 저변 확대 기폭제 될 듯, 월 만원으로 전용구장 만원 캠페인 성공 기대

“축구 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용구장이 중요하죠. 대구스타디움처럼 거대한 종합운동장은 관중효과도 떨어지고, 재미도 반감되죠. 이제 내년부터 전용구장이 생기면 관람여건부터 달라질 겁니다. 선수들의 뛰는 장면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고, 관중들도 하나가 되어 응원할 수 있어요. 대구축구 발전과 엔젤회원 확대에 큰 기폭제가 될 겁니다.”

이 회장은 이런 점에서 최근 엔젤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엔시오(엔젤+소시오; FC 바르셀로나의 후원자)’의 ‘만원의 만원 캠페인’을 높이 평가했다.

“어떤 단체든 잘 되려면 특정인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참여는 물론, 그 의미도 더 해지겠죠. 그런 점에서 월 ‘만원’으로 축구전용구장을 ‘만원’시키겠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어느덧 ‘천사데이’를 개최한 지 1년 이 다되어 간다. 이회장은 다시 한 번 그때의 흐뭇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엔젤클럽의 성공을 기원했다.

“엔젤클럽이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졌으면 한다.”는 이회장은 “대구FC가 시민구단의 특성을 살려 지역의 우수한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듯이, 엔젤클럽 역시 젊은 층에 보다 많이 알리면 그 뿌리가 튼튼해져 언젠가는 보다 많은 시민이 엔젤이 될 것”이라며 진정한 ‘시티 오브 엔젤’을 기대했다. 

축구사랑과 봉사정신이 바로 엔젤정신, 지난해 천사데이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

축구에 대한 이회장의 식견도 남달랐다.

“축구는 공공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럽 어느 도시를 가든 축구 클럽이 있고, 이 클럽들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구심점이죠. 시민들도 축구 클럽이 공공재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대구FC 엔젤클럽이죠.”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축구전용구장 얘기가 나오자, 축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는 이회장의 마음도 한층 가벼워졌다. 축구전용구장은 이회장이 축구협회장 재임시절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던 숙제였다.



건축가를 꿈꾸는 디벨로퍼 이동경 엔젤 부회장 (<주>도원투자개발 대표)



구상하는 데만 약 5년 '동성로 스파크' 대구의 명물로 만들고파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대표는 부동산 개발 기획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시행사업자, 이른바 부동산 디벨로퍼다. 이동경 대표는 건축을 전공한 대구 유일의 디벨로퍼로 설계도면을 분석해 사업성과 분양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CEO로 인정받고 있다.

(주)도원투자개발은 대구의 신개념 테마파크 쇼핑몰 '동성로 태왕스파크'를 지난 7월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동성로 태왕스파크는 이동경 대표가 4년 반 전부터 준비해오던 사업이며 그동안 설계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대표의 애정이 남다르다.

대구에는 젊은 청년, 학생, 관광객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부족하다. 특히 대구의 젊음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동성로에도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 이대표의 고민이라면 고민이었다. 고민 끝에 이대표는 젊은이들이 젊음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자 쇼핑몰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동성로 태왕스파크'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대표는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평소 세계 곳곳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거나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한다. '동성로 태왕스파크'하면 가장 상징적인 옥상의 관람차는 오사카 헵파이브 관람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또한 '동성로 태왕스파크'는 건물 외부에서 2~3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은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의 전망 에스컬레이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이대표는 특히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을 좋아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해외 유명 놀이공원 투어를

다녔다. 그 덕분에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도 쌓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동성로 태왕스파크'에는 놀이적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다. 옥상에는 대관람차 뿐만 아니라 자이로스핀, 회전 티켓, 소형 자이로드롭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설치한다. 옥상 바로 밑층에는 최첨단 VR 테마파크가, 그 아래층에는 락볼링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이 들어서층세계층이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준비된다.

또한 옥상에는 동성로를 내려다보며 휴식할 수 있는 루프탑바, MBC 오픈 스튜디오, 바닥이 투명한 데크를 만들어 포토존을 만드는 등 젊은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소위 '핫'한 요소는 모두 갖추고 있다.

이대표는 동성로 태왕스파크는 분양받는 사람과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수익을 창출하고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길거리에 많은 상점이나 홈쇼핑, 인터넷 쇼핑, 해외직구 등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보다 '체험'이 더 중시될 겁니다"라며 "젊은이와 관광객들이 쇼핑과 함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체험'하면서 쇼핑과 문화의 융합을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노력...
문학, 사회, 역사, 예술 등 늘 공부

이동경 대표는 경북대 건축과 재학 시절부터 남달랐다. 대구미술대전 건축부문 최우수상, 한국건축대전 입선, 졸업작품 총장상 수상 등 수상을 휩쓸었고, 화성산업 재직시 다섯개 사업지를 동시 분양한 드림파이프 프로젝트 등 진기록을 가지고 있는 등 지금까지 실 새 없이 달려왔다.

“사람들이 저보고 운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대표의 말을 듣고 떠오른 건 잔잔한 수면 아래 열심히 물갈퀴질을 하고 있는 백조였다. 이대표는 지금도 매주 목요일은 영어공부를 위해 아무런 약속을 잡지 않고 있고, 평소에도 문학, 사회,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방면으로의 공부를 게을리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그의 사무실 한쪽 벽면의 커다란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빼곡히 꽂혀져 있었다.

이대표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했다. 열심히 해서 실력이 쌓이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력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티가 난단 말입니다. 다만 겸손함과 성실함은 반드시 갖춰야겠지요”라며 이대표는 말했다.

이대표는 현재 자신의 꿈은 50대 후반 경에 건축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건축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건축사가 되어 진짜 제대로 한번 멋진 건축물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이다.

꿈을 이야기할 때 이대표의 눈은 유난히 반짝였다. 이대표가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뛰어올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아름다운 행보가 기대된다.



엔젤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달다.

엔젤 날개를 달다. 엔젤빌리지 앞에 조성된 엔젤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다신 분들을 기념합니다. 앞으로 포토존에서 촬영해서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매거진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엔젤의 키다리아저씨!

‘브라보’ 김재홍 엔젤 부회장

“지금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덕분입니다’ 캠페인을 실천하는 키다리 엔젤



“인생의 항로에서 풍랑을 만나 어두운 그림자처럼 해매일 때 나도 알지 못한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준 많은 분들의 신뢰와 믿음은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고 살아가는 기운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많은 분들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덕분입니다.”

대호약품 홈페이지의 IOU캠페인에서

흰칠한 키에 젤튼한 외모. 김재홍엔젤부회장(대호약품 대표)을 처음 볼 때 생각나는 캐릭터는 바로 사춘기 때 누구나 그려보는 진웹스터의 소설 속 주인공 ‘키다리아저씨’다.

외모는 물론 마음 씀씀이도 딱 그 캐릭터다. 이 세상 모든 ‘주디’(키다리아저씨의 주인공)에게 희망을 품게 했던 ‘키다리 아저씨’ 처럼 김재홍엔젤은 지역 사회에서도 따뜻한 ‘브라보’ 신사로 유명하다. ‘브라보’는 흔한 말이지만, 그가 외치는 ‘브라보’는 확실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 그 이유는 김재홍엔젤 스스로 ‘브라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홍엔젤이 운영하는 대호약품 홈페이지에는 여느 홈페이지처럼 CEO인사말 같은 건 없다. 대신 <덕분입니다>라는 코너가 있고 ‘IOU캠페인, 지금 당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이 있다.



선수 격려차 중국으로 향한 김재홍 엔젤(오른쪽 위)

엔젤 원년 멤버, 소리 없이 각종 후원 몸소 실천
본업 약품부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후원

대호약품 대표 김재홍 엔젤. 그는 스포츠의 ‘언성 히어로’처럼 실제로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옆에 함께 하는 ‘언성 엔젤’이다. 그는 2015년 엔젤원년 창단 멤버이며, 엔젤이 10명도 채 되지 않을 때부터 엔젤이었다. 그의 취지가 그가 평생 살아온 철학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에 엔젤이 됐고, 그래서 누구보다 엔젤을 사랑하며 자부심도 크다.

엔젤부회장이지만 운동장에서 그의 얼굴을 자주 보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는 엔젤이 가는 어디에나 있다. 엔젤 비전선포식, 천사데이와 같은 큰 행사는 물론,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협찬품이 먼저 와 있다. 명절에는 수고하는 스텝들 선물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김미숙 엔젤의 천사표 엔젤김밥에도 김재홍 엔젤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함께한다.

앞서 홈페이지에 적어두었듯이 그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언제나 최우선이다. 그의 인생에서 언제나 기회는 사람을 따라왔다고 했다.

사람 때문에 시작된 후원활동도 한 두 개가

아니다.(하단 이력 참조) 본업인 의약품은 물론 스포츠, 문화계까지 폭넓은 그의 후원활동도 다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의 뜻에 함께 하기 위해 엔젤을 시작했고, 대구광역시하키협회장은 달성고등학교 시절 하키선수였던 친구 구본일 전무이사가 하키협회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를 도우기 위해 시작됐다.

사업도 그랬다. 김재홍 엔젤은 1988년부터 1998년까지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에서 대구경북지점장까지 올랐다. IMF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이 회사를 떠났고, 정리해고를 하였지만 자신을 믿어주고 이끌어준 상사와의 인연으로 끝까지 회사에 남아 별별 고생을 다했다. 1998년 대호약품을 시작한 것도 그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대호약품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무렵, 평소 존경하던 선배가 운영하던 화장품 개발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연구와 개발을 거듭한 결과 지금은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이 되었다.

엔젤정신 담긴, 대구맥주 ‘엔젤비어’ 만들고파

문준기 대경맥주대표, 대구경북의 맛, 수제 맥주 생산
엔젤활동에 감동, 홈 원정 경기, 각종 행사에 맥주 후원

‘좋은 맥주는 한 모금만 마셔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다 마셔봐야 한다.’

독일만큼 맥주를 사랑하는 체코인의 속담이다. 좋은 맥주에 대한 사랑과 그 맥주를 즐기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속담 속에 고스란히 스며있다. 이처럼 맥주는 단순한 술이 아닌 하나의 문화다. 술중에서 가장 알코올 도수가 낮아 부담이 없으면서도, 편하고 느낌이 좋다. 특히 ‘크래프트 맥주(Craft beer)’, 즉 수제 맥주의 경우 생산하는 곳에 따라 다양한 맛을 가진 만큼 그 자체로 그 지역의 특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대량생산에 익숙한 한국에도 최근 수제맥주가 선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문준기 엔젤(대경맥주 <주>대표)이 ‘디 퍼스트(D First)’라는 브랜드로 수제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대구 최초, 최고’ 라는 뜻의 ‘디 퍼스트’는 최고 품질의 맥아, HOP, 순수 배양된 효모로 만든 프리미엄 맥주다. 전분, 옥분 등 부 원료와 어떤 첨가제도 사용하지 않아 진정한 생맥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맥주양조장이 있는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대경맥주 본사에 들어서자 숙성되는 맥주 향기가 알큰했다. 사무실에서는 새우과자와 금방 뽑은 수제맥주가 나왔다. 맥주카테고리 중에 가장 대중적인 라거(Lager), 맥아와 밀을 주원료로 해 맛과 향이 풍부한 바이젠(Weizen), 고온에서 볶은 맥아를 사용해 농후한 맛과 향이 어우러진 둔켈(Dunkel), 쓴맛이 강한 인디언 페일에일 등 혀가 탄복할 맥주가 유혹했다. 깊고 진한 맛이 커피로 치면 바디감이 좋고 목 넘김이 그만이었다. 하지만, 대낮이다. 시음은 간단히, 대신 문준기 엔젤에게 취해버렸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문준기 엔젤은 ‘맥주 장인’ 같은 숙성된 미소로 맞아주었다. 문준기 엔젤은 국내 대표적인 맥주제조사에서 22년 동안 근무했다. IMF 이후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수제맥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의 꿈은 심플하면서도 명확하다.

“대구경북에 오면 대구경북의 맥주를 마셔보시라!”

그 지역마다 특색 있는 맥주를 생산하게 되면 그 것은 단순히 ‘맥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도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문준기 엔젤은 강조한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그 길은 쉽지 않았다. 우선 2002년부터 국내 주세법이 바뀐다고 했지만 12년이 지난 2014년이 돼서야 규제개혁차원에서 소규모로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풀렸다. 오랜 기간 준비해야 했고, 장치산업이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었다.

문준기 엔젤은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들의 맥주! 대구경북맥주’라는 목표 하에 독심 있게 밀어부쳐 오늘에 이르게 됐다. 어찌 보면 기업구단이 아닌 대구시민이 만든 ‘우리들의 축구단’, 대구FC! 엔젤클럽과 닮았다.



**스포츠 분야 주목, 지역 연고 구단 로컬 맥주 콜라보 당연
유럽 및 일본 프로스포츠계 맥주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구단 지원**

문준기 엔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준비하면서 특히, 스포츠산업과 맥주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미국의 경우 버드와이저나 밀러 같은 맥주가 있지만, 홈구장에 가면 그 지역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스포츠 구단의 경우 지역을 연고하는 팀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콜라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념으로 문준기 엔젤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오픈할 때 ‘디 퍼스트’를 적극 제안해 결국 라팍 내에서 ‘디퍼스트’ 수제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다. ‘디퍼스트’는 요즘 대구 팬도 팬이지만, 타 지역 원정팬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스포츠 강국인 일본의 경우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맥주는 구단도 살리고 지역도 살린다고 한다.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의 경우 40대 중반인 젊은 구단주가 지역 크래프트 비어를 가져와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맥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데, 구단 운영비와 외국인 선수 영입할 돈이 마련될 정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준기 엔젤은 건립중인 대구축구전용구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바람이 있다면 국내 최초로 프로축구 홈구장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생맥주를 제공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엔젤의 정신이 담긴 ‘엔젤비어(Angel Beer)’! 그렇게 된다면, 지역 축구팬은 물론, 전국 각지의 원정응원단이 와서 ‘엔젤의 정신’이 담긴, ‘대구의 맥주 맛’을 볼 수 있게 된다. 개인적인 수익을 바라서가 아니다. 최소 수익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구FC에 기여하겠다는 뜻이다. 문준기 엔젤 역시 엔젤회원으로서 대구 FC발전을 통한 지역 사랑을 실천하고 싶기 때문이다.

“대구FC가 기업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여러 가지로 수익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준기 엔젤은 “그 방법의 일환으로 ‘엔젤비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대구시민은 물론 타지역에서 오는 팬들에게도 널리 알린다면, 구단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대구경북의 맥주 맛을 알리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기 대표가 엔젤과 인연을 맺은 것은 최종해 엔젤(동양종합건설대표)로부터 추천받고부터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 어려서부터 축구공하나만 있으면 친구들과 어울렸던 추억이 있고, 고등학교도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다녔다. 대구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다 지난 2014년 ‘우리들의 맥주’, ‘대구경북맥주’를 만들기 위해 귀향한 것처럼, 시민들이 만든 ‘우리들의 축구단’ 대구FC를 후원하는 엔젤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문준기 엔젤은 “엔젤가입식은 물론 500명이 활동하는 단톡방에 활동하는 것을 보면 엔젤의 축구사랑과 지역사랑에 깜짝 놀란다”며 “앞으로 엔젤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고 구단 성적도 좋아지면 대구축구도 살아나고 우리지역도 발전하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문준기 엔젤은 이런 엔젤활동에 감동해 엔젤축구대회 및 홈경기, 그리고 포항원정 경기에 직접 생산한 수제맥주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엔젤들은 이 맥주를 벌써부터 ‘우리들의 맥주! 엔젤비어’라고 부르며 대구 FC의 승리를 더욱더 열렬히 기원하고 있다.

최근 달성군에 맥주보리를 재배해 이를 통해 진정한 대구의 맛을 연구하고 있는 문준기 엔젤은 “앞으로 맥주가 갖고 있는 건강과 미용의 특성을 잘 살려 ‘Beer Healing Park’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문준기 엔젤이 말하는 건강한 맥주 음용법

문준기 엔젤에 따르면 수제맥주는 건강에 좋고 도수도 낮아 적당히만 마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문엔젤이 원하는 건전한 맥주 음용법을 정리해 봤다.

1. 하루 맥주는 2-3잔이면 충분 : 성인기준으로 하루 적정 맥주량은 500CC로 2-3잔 정도이다.
2. 가장 맛있는 맥주 : 수제맥주는 우리나라 막걸리와 같다, 공장에서 숙성했을 때 가장 빨리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맥주를 마시는 방법이라고 한다.
3. 수입맥주는? : 최근 수입맥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 파는 수입맥주의 경우 대부분 효모 다 걸러내고 열처리해서 1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만큼 유통기한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맥주는 막걸리처럼 신선하게 마셔야 되니까, 동네마다 작은 맥주공장들이 많다. 독일만하더라도 2500개 정도가 있다. 그 지역에서 만들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게 중요하다. 품질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정리하면 맥주는 열처리 하지 않은 공장에서 생산 숙성했을 때 가장 빨리 마시는 것이 좋고, 그 량은 500CC로 2-3잔 정도라는 것. 그러면 앞의 속담처럼 첫맛의 행복과 함께 행복감을 내내 즐길 수있는 방법이 찾아올 것이다.



‘엔젤정신, 독일 선진 축구문화와 같아’

‘엔젤’, 즉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랑’이라는 개념이 스포츠계에 회자 되면서 이제 ‘엔젤’은 해외에서도 심심찮게 알려지고 있다. 지난 호 영국에서 보내온 한 젊은 청춘의 엔젤에 대한 한편의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는 독일 발 엔젤소식이 날아왔다. 독일에 있을 당시 대구FC 엔젤클럽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반가워 귀국하자마자, 엔젤사무국으로 연락이 온 서성도 독일 SEO(쎄오)뵐런스운동센터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2년전 독일에서 엔젤클럽 출범 소식에 감동

9월초 엔젤사무국으로 전화가 왔다. 독일에서 귀국했다는 서 대표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열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주변 정리하기도 정신없을 텐데 마음이 급해, 바쁜 와중에 직접 수화기를 든 것이다. 국내는 물론 중국 등 외국에서 스포츠 의학과 재활을 공부해온 서 대표는 대구FC가 창단할 때, 본인은 물론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식공모에 참여할 정도로 열의를 가졌다고 한다. 물론 자발적이다. 그러니 대구FC에 대한 애정이 오죽 남다를까! 한 마디로 엔젤의 영혼을 가진 것이다.

그 후 스포츠의학과 재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공부와 축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독일로 떠났고, 독일에서는 뮌헨, 베를린, 마인츠, 쾰른 등 여러 곳에서 선진축구문화를 경험했다. 바로 ‘축구는 우리사회를 건전하게 하는 공공재’라는 철학이었다.

“독일은 물론 유럽의 경우 마약이나 청소년

범죄가 심각합니다. 축구는 바로 이런 청소년들이 건전한 세상으로 나오는 ‘창’과 같습니다. 실제로 축구로 인해 범죄가 줄어 들고, 아이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을 배려하는 등 축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축구 안에는 실제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연고지 시민들의 축구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다. 축구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스포츠를 즐기며 몸과 마음도 건강해 지니, 축구를 ‘우리의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서대표는 강조했다.

서대표가 독일축구를 최고로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구단의 건전한 경영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스페인의 라리가에 열광하고 있지만, 축구문화나 시스템의 성숙도에 있어서는 독일이 최고 라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독일 분데스리가는 가장 관중이 많은 리그 중 하나며, 적자구단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에서는 ‘축구도 공공재’, 도르트문트의 사례 강조

서 대표는 그 중에서도 꼴벌 군단 ‘보루시아 도르트문트(Borussia Dortmund)’에 주목했다. 박주호, 그리고 가가와신지로 익숙한 이 팀은 지금은 독일을 대표하는 명문구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역사 속에서는 아픔과 환희, 수많은 스토리들이 점철되어 있다.

도르트문트는 1909년 지역 청년들의 진취적인 꿈을 담고 창단됐다. 물론 한계도 있었다. 젊은이들에 의해 창단된 클럽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약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파산의 위기에 몰렸다. 이 때 나선 것이 지역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극심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도르트문트를 그대로 망하게 두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젊은 사람들이 올바른 축구 클럽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건강한 초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그 후로도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독일의 여러 팀들을 사랑하지만, 저는 특히 도르트문트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FC 바이에른 뮌헨(Bayern Munchen)과 함께 독일 양대 축을 이루고 있지만, 구단 운영 스타일은 달라요. 홈구장 ‘알리안츠 아레나(Allianz Arena)’를 갖고 있는 뮌헨은 독일 대표 기업인 벤츠와 그 밖의 여러 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비해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파렌주에 있는 도르트문트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지원 참여가 구단 운영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지역 주민의 축구를 바탕으로 하는 축구철학이 체계 와 닿았어요.”

독일 축구철학에 심취해 있던 서 대표는 지난 2016년경 독일로 지도자 수업을 하러온 한국의 축구지도자들과 쾰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수 출신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들었다.

“독일에 와서 자주 대구FC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대구FC는 엔젤클럽이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지 뭐니까? 제가 평소 생각하던 일이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구에 가면 꼭 찾아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엔젤클럽에서 발간하는 매거진을 보여주자 서 대표는 갑자기 옷장을 열어 독일에서 입었던 도르트문트의 노란색 유니폼을 보여주었다.

“독일에는 ‘굿즈(Guts)’라고 해서, 구단에서 만드는 각종 물품에 ‘혼’과 ‘철학’을 담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유니폼에는 창단 당시 청년들의 건전한 정신이 담겨 있고, 이런 정신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유니폼을 입으면 마치 그 팀의 철학을 그대로 느낀다는 서대표는 “독일에서는 팀과 관련된 작은 ‘굿즈’ 하나 만들더라도 열 번 이상 고민해서 혼을 담는다”며 “그러니 팬들이 그 기념품을 보면 사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팀의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물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일 축구문화가 몸에 밴 서대표가 중요시하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선수들의 ‘정신’이다. 프로축구라고 한다면 바로 그 연고지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독일의 경우 그 지역 선수를 집중 육성해 프랜차이즈 선수로 키우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도 그 지역 출신을 우선시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그 지역 선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친척, 친구, 동창들이 모두가 팬이 될 것이고, 지역 주민 역시 ‘우리선수’라는 자부심에 경기장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 강력한 마케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서 대표는 무엇보다 연대감이 강한 대구의 경우, 지역 연고 선수로 인한 관중 유입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2시간을 훌쩍 넘겨도 축구에 대한 서 대표의 이야기는 끊기 지 않았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궁금해 하던 것’을 질문했다. 바로 ‘엔젤’이 되는 방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엔젤모바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서대표는 곧바로 엔젤 모바일앱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해서 진정한 ‘엔젤’ 됐다.

아직은 센터일이 마무리 되지 않아 엔젤 단독방에서 열심히 대구FC와 엔젤을 응원하고 있는 서대표는 “앞으로 일이 정리되는 대로, 엔젤을 통해서 축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활동을 기대케 했다.



독일에서 축구는 공공재다.
청소년들은 축구를 통해 건전한 정신
그리고, 배려를 배운다.
구단은 유니폼 등 물품에 혼을 담고,
시민들은 그 혼과 철학을 사랑한다.

엔젤인문학

덕후(德厚)엔젤, 엔젤덕후!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광렬, 이순재, 황수경 등 주연과 임현식, 이희도 등 조연의 열연이 돋보인 명작이었습니다. 최고 시청률 63.5%를 기록했으며, 평균 시청률도 53%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뒤에 리메이크 되기는 했지만, 원작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블방송에서 자주 재방송되곤 했는데, 저는 다시 볼 때 마다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어 참 대단한 드라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본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은 허준이 과거보러가는 길에 진천마을에서 병자들을 돌보는 부분입니다. 다른 의원들이 모두 과거를 보러 떠났지만, 자신을 붙잡는 병자들을 뿌리치지 못한 허준은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결국 무지렁이 마을 사람이 그를 위한답시고 말을 훔친 것이 화근이 되어 허준은 관아로 잡혀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허준에게 치료를 받은 병자들이 관아로 찾아가 구명해주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진천 사또는 허준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그를 불러 한상 차린 뒤, 술을 권하며 이런 ‘위로’를 합니다.

“덕(德)은 외롭지 않고, 친구(友)는 곳곳에 있는 법이네.”

허준은 사또의 말에 크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장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낙방하고 말지요. 이 때 보인 허준의 행동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비록 병자들 때문에 과거를 치르지 못했지만, 허준은 결국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오는 길에 다시 진천 마을에 들러 남은 병자까지 치료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허준의 마을에 까지 알려졌고, 마을 사람은 병자를 외면하고 입격한 유의태의 아들 ‘도지’보다 ‘허준’을 더 칭송하고 반갑게 맞아 줍니다.



덕불고필유천사德不孤必有天使
덕은 외롭지 않고 엔젤은 곳곳에 있네



앞서 사또가 한 말은 논어(論語) 이인(里仁)편에 나옵니다.

“덕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그 이웃이 있느니라.”(子曰 德不孤必有隣)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에 다시 주목한 것은 아마도 엔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 엔젤클럽 초창기 회원님들을 직접 뵈러 가면, 그 후광과 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해하고, 따뜻하게 해주니, 그야말로 후덕한 분들이었습니다. 또 한번은 김종두사무총장이 영천에 사업장이 있는 모 엔젤님을 찾아가자, 먼 길 왔다며, 오백만원을 흔쾌히 후원하시며, 오히려 고마워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덕’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덕’을 가진 엔젤들이 나타나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후덕한 엔젤들이 함께 해 우리는 정말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엔젤덕후’, ‘엔덕행덕’, ‘엔메’, ‘엔업일치’
엔젤과 관련된 재밌는 말, 이제 엔젤도 문화로 정착

‘덕’이란 글자가 들어가니 문득 요즘말로 ‘덕후’란 말이 생각합니다. ‘덕후’는 일본어 오타쿠(御宅)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오덕후’의 줄임말로, 현재는 어떤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덕후’와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덕질’이라고 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심취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찾아보는 행위’를 이르는 말도 있고, ‘어덕행덕’이라고 해서 어차피 ‘덕질’할 거면 행복하게 ‘덕질’하자. ‘덕메’는 덕질과 메이트(mate)를 합친 말로 ‘함께 덕질하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자성어처럼 그럴 듯 해 보이는 ‘덕업일치’는 ‘덕질과 직업’이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재미삼아 인터넷에서 ‘덕후’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형용사 ‘후덕하다’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젤덕후’, 또는 ‘덕후엔젤’이라는 합성어도

어감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아간 김에 앞서 나온 ‘덕후’에서 파생된 유행어에 엔젤을 대입해 보니, 재미가 쏙쏙 했습니다. ‘엔덕행덕’은 ‘어차피 엔젤 할 거면 행복하게 하자’는 뜻일 테고, ‘엔메’는 엔젤과 메이트를 합쳐 ‘엔젤하는 메이트’가 됩니다. 한마디로 ‘엔클’, 즉 엔젤클럽이지요. 그리고 보면 ‘엔업일치’는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칫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지만, 제가 사용하는 ‘덕후엔젤’의 덕후는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젤에 몰두하고 열정을 가진 분, 또 덕이 ‘후(厚)’해서 훈훈한 사람을 뜻합니다.

말이 나와서 그렇지 요즘 엔젤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엔젤’, ‘엔시오’, ‘시민엔젤’, ‘만원의 만원(滿員)’, ‘엔젤원정대’, ‘부부엔젤라’, ‘엔젤룸’, ‘엔젤아레나’... 이것이 바로 엔젤이 문화로 정착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덕후엔젤’, ‘엔젤덕후’를 슬쩍 갖다 붙여 봅니다.



대구FC엔젤, 대구시공무원노조와 협약체결



시민구단 대구FC 창단의 주인공인 대구시공무원들이 이번에는 대구FC의 자발적인 시민단체인 엔젤클럽과 함께하기로 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상옥)과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이 시민구단 대구FC 후원에 힘을 합쳤다. 지난 9월13일 대구FC엔젤클럽(이하 엔젤클럽)과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공노)이 호텔 인터볼고 대구 VIP룸에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구FC의 성공과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참석자 전원 소액후원 엔시오 가입, 확대 기대

대공노의 엔젤협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지난 2002년 대구FC 창단 무렵, 대부분의 대구시 공무원들이 대구FC의 주식공모에 참여하는 등 시민구단 창단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대공노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 모임인 엔젤클럽 취지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됐다.

이상옥 대공노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와의 협약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지만, 대구FC는 대구시민이 주주인 시민구단이며, 엔젤클럽 역시 대구정신을 일깨우고 시민구단 후원을 통해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순수 민간단체로, 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며 “공무원이기 이전에 대구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을 마친 후 그 자리에서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이상옥 위원장, 정종율 수석부위원장, 김영진 사무총장, 최영진 총무국장이 엔젤클럽에서 개발한 ‘모바일 앱’을 통해 엔시오 회원에 직접 가입하며 ‘축구사랑, 대구사랑’을 실천 했다.(좌측 사진)

강병규 엔젤클럽 운영본부 상임부회장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단체와 많은 협약을 했고, 모두 의미가 있지만, 대공노의 공감과 참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대공노의 참여에 적극 환영했다.

이어 강부회장은 “내년에 선보일 대구축구전용구장의 성공을 위해 현재 엔젤에서는 월 만원으로 경기장을 ‘만원’시키는 ‘만원의 만원 캠페인’을 통해 ‘엔시오(엔젤+소시오: 유럽축구 후원팬)’를 모집하고 있는 만큼, 2,200여명의 대공노 조합원과 함께 대구전용구장을 만원시키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했다.



엔시오 확대, ‘대공노의 날’브랜드데이 등 공무원 참여 큰 의의

특히, 이 위원장의 대구FC와의 인연은 남다르다. 이 위원장은 대구축구전용경기장 설계 당시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만큼 대구축구전용구장에 대한 애착이 크다.

이 위원장은 “대구스타디움에서 응원할 때 항상 아쉬움이 컸다. 우리도 포항이나 다른 구단처럼 전용구장이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을 늘 했다”며 “이제 대구축구전용구장이 대구FC 발전과 엔젤활성화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런 분위기 속에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엔시오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홈경기가 있는 날, 전 노조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의날’브랜드데이 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도 “오늘 대공노와의 협약은 대구의 역사적 발자취가 될 것”이라며, “기꺼이 엔젤클럽에 동참해준 대공노 2,200명의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데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ngel Club의 엔시오 회원이 되세요! (엔젤+소시오)

⚽ 대구FC 엔젤클럽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엔젤들은 엔젤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25일 엔젤회원 100명이 모여 엔젤클럽을 창립하였으며, 11월에는 회원이 더욱 증가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거행하면서 대구FC 프로 축구단을 최고의 구단으로 키워보자는 목표를 향하여 본격적인 후원천사의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200여명의 엔젤 회원들이 대구FC의 꿈을 위해 함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 엔시오 만만(萬滿) 프로젝트!

- 기간: 가입이후 계속 ■ 금액: 10,000원 / 월 (자동이체)
- 혜택:
 - 구단 및 엔젤소식 E-mail, SMS 문자발송 (엔젤 매거진포함)
 - 대구FC 사인볼 및 배지제공 / 구단수첩 제공
 - 구단 및 엔젤행사 우선 참가권 부여
 - 엔젤회원과 동등한 활동가능



매월 만원으로 대구를 채우세요! 대구가 일어섭니다!
조현우를 더 가까이,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석(萬席)꾼이 됩니다.

대구FC엔젤클럽, 만원의 만원(滿員) 캠페인

엔시오 (엔젤+소시오) 만만(萬滿)한 캠페인

대구 축구장을
'만원으로 만원(滿員)시키자!'

월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현우를 볼 수 있다! 시민엔젤 엔시오가 될 수 있다! 대구축구전용구장을 만원시켜 대구를 축구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자체 개발 엔젤앱으로 월 1만원 자동이체 가능

사인볼, 엔젤배지, 연간입장권 등 지급

대구FC엔젤클럽이 대구축구전용구장 완공을 앞두고, 월 만원으로 대구전용구장을 가득 채우자는 '만원의 만원' 엔시오 캠페인 전개를 통해 대구 축구붐 조성에 나섰다.

'시민엔젤' 엔시오는 엔젤과 소시오(FC바르셀로나의 팬 클럽)를 합성한 것으로 엔젤의 후원릴레이 정신을 가진 후원자를 뜻한다. 월 만원(1년 이상) 구단 계좌에 자동이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면 K리그 1년 입장권과 사인볼, 엔젤배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엔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다.

이호경 엔젤회장은 "그동안 100만원 이상 후원하는 엔젤 릴레이와 함께 소액 후원으로도 엔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엔시오 회원을 릴레이 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성화 되지 않았다."며 "연말에 대구전용구장이 완공되는 만큼 '만원'으로 전용구장을 '만원(滿員)' 시키겠다는 '만원의 만원' 캠페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엔시오 모집에 나섰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조현우 선수가 대구시민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엔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 하면서, 엔시오 모집에도 '조현우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조현우 선수는 엔젤사무국을 방문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치 않고 선수들을 응원하고 후원했던 엔젤회원들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전하면서 엔젤회원들은 큰 감동을 받고 있다. 실제로 엔젤사무국 인근에 있던 상가의 대표자와 직원들이 현장에서 엔시오 가입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구스타디움 전광판으로 '만원의 만원'캠페인 안내
10월20일 국제로타리3700지구 로타리안데이 홍보

엔젤은 지난 7월8일 KEB하나은행 K리그 1 후기 개막전인 대구FC와 FC서울의 홈경기에서 1만 장 이상 '만원의 만원' 홍보전단을 나눠줬고, 2천500여 명으로부터 관심이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엔젤은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연락을 취해 본격적인 엔시오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 매 홈경기 전광판을 통해 '만원의 만원'캠페인을 홍보하고 있으며, 10월20일 '로타리안데이'를 맞아 경기장을 찾은 국제로타리 3700지구 1천여명의 로타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엔젤' 엔시오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김완준 엔시오본부 부회장은 "조현우 선수의 활약 이후 대구FC와 엔젤클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엔시오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면 내년에는 엔젤과 엔시오, 그리고 대구시민이 1만2천석 전용구장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축구동호인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랫동안 축구동호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정소영 엔시오본부 상임이사는 "축구동호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엔시오에 관심을 나타냈다."며 "월 만원이면 새롭게 완공되는 대구축구전용구장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만원의 만원'이라는 목표가 의미 있고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엔젤은 이외에도 엔젤회원사의 직원과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엔시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도 '만원의 만원' 캠페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엔시오 가입에 설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호경 회장은 "조현우 효과와 함께 대구FC가 1부에 잔류하고 현재 분위기만 이어진다면 엔시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만원의 만원'이 꿈만은 아닐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영회계법인

대표 강 병 규

대호약품

대표 김 재 흥

광개토병원

원장 김 주 성

(주)한국디자인모형

회장 박 동 규

ANGEL
SPONSOR

(주)한미산업

대표 신 용 범

(주)태준메디칼

대표 엄 태 건

바로본병원

원장 윤 태 경

정원자카텍

원장 정 모 경

한국일보

부장 강 은 주

뉴스웨이대구경북

본부장 강 정 영

(주)위드

대표 권 일 경

푸르덴셜생명보험

김 강 수

(주)세영디앤씨

대표 김 국 경

삼성생명

김 규 정 명 인

(주)범서

대표 김 동 규

주원

대표 김 미 숙

Amway

김 세 중

(주)에스알

대표 김 용 범

(주)하우스탐디앤씨

대표 김 재 업

(주)한국파이프

대표 민 춘 흥

변호사

박 경 환

비에스치과

원장 박 관 식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 성 수

(주)국제시스템

박 주 현

장아푸드

대표 박 현 주

대구FC엔젤클럽

이사 박 혜 영

(주)뷰티코하트

대표 백 무 연

(주)산동개발

대표 서 태 현

대영레데코(주)

대표 송 원 배

동명테크윈(주)

대표 심 인 철

광진종합건설(주)

대표 안 상 영

GOLDEN-B

대표 윤 창 섭

조아전자(주)

대표 이 상 섭

한경회계법인

회계사 이 재 호

(주)에드스미스

대표 이 태 훈

동양OA

대표 전 성 렬

(주)창성산업

대표 정 소 영

(주)다원아이디

대표 정 영 준

수성정비센타

대표 최 경 목

(주)영진기공

대표 현 정 규

월드스타 된 조현우 엔젤사무국 방문

엔젤에 항상 고마워, 은퇴는 대구서 할 것 약속

월드스타 조현우 선수가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 사무국을 방문, 엔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조현우 선수는 최근 호텔 인터볼고 대구에 위치한 엔젤사무국을 찾아, 그동안 선수들을 응원해준 엔젤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엔젤회원들도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조현우선수 환영 현수막’을 100장 걸었던 이호경 회장은 “러시아 월드컵 독일 전 이후 인터뷰에서 ‘대구시민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저와 엔젤은 물론 대구시민 모두가 위안을 받고 감동 받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자, 조현우 선수는 “대구는 내가 처음 프로에 입단한 팀으로 정말 애정이 많다.”며 “아내에게도 은퇴한 뒤에 대구에서 살자고 할 정도여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현우 선수는 엔젤 회원들에게 “저는 물론 다른 선수들도 힘들었던 상황에서 엔젤 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진심으로 응원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으면 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 엔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앞으로 대구FC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구FC선수들을 많이 응원해 달라”면서 “나중에 은퇴는 꼭 대구에서 할 것”이라고 말하자, 엔젤의 환호가 이어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강병규 엔젤운영본부 부회장의 제안에 따라 이호경회장과 조현우 선수가 엄지 손가락 도장을 찍으며 이를 확인하자, 엔젤사무국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조현우 사인 및 기념촬영 엔젤 뜻깊은 한때 보내

강병규 엔젤운영본부 부회장은 이에 대해 엔젤은 앞으로 조현우선수를 영원히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고, ‘조현우 선수의 말’대로 대구FC와 선수들의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현우 선수는 이날 회원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기념 촬영을 하며 엔젤회원들과 하나가 됐고, 엔젤들도 자랑스러워 하며, 앞으로 제2의 조현우가 나와주기를 기대했다.

한편 엔젤클럽 도예가인 소천 천종태 엔젤은 7월18일 대구FC홈경기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 ‘텔스타18’을 모티브로 조현우선수의 땀과 노력이 담긴 도자기 작품을 제작, 조현우 선수에게 전달해 조현우선수에 대한 엔젤의 애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당초 천 작가는 월드컵이 열리기 전 러시아로 향하는 조현우 선수에게 선전하라는 엔젤의 마음을 담아 작품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전달하게 됐다.

이외에도 계간으로 발행하는 ‘엔젤매거진 여름호’도 조현우 선수를 표지 모델로 다루고 조현우 환영 현수막을 대구도심에 100장 게첨하는 듯 조현우 선수로 인해 다시 일어나고 있는 대구의 축구 불을 엔시오 확대로 이어나가고 있다. 조현우 선수 또한 이에 화답 2018년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엔젤룸을 찾아 “열심히 해서 꼭 금메달을 달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켰다. 



엔젤존 핫플레이스로 뜨다!

엔젤 응원단 집결, 구단에선 특별 이벤트 실시
 언론에 노출, 새로운 응원공간으로 자리매김

대구스타디움 E석 엔젤룸 앞의 엔젤존이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엔젤존은 그동안 엔젤회원은 물론 가족, 친지, 그리고 회사동료들이 함께 응원하던 곳이다. 엔젤클럽에서는 올 시즌 초부터 엔젤존 위쪽에 ‘대구FC는 엔젤이다, 엔젤은 릴레이다. 승리를 릴레이한다’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엔젤존을 홍보했으며, 각종 방송은 물론 신문 등 언론에 노출되면서 엔젤의 성역으로 자리잡았다.

엔젤클럽은 이에 따라 엔젤과 동반하는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유도했으며, 이들을 위한 응원도구인 막대풍선과 썸캡 등을 배포했다. 물론, 엔젤로부터 후원받은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엔젤이 후원한 공연티켓도 응원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엔젤존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였다.

대승기원존, 세징야존, 조현우존 등 이벤트 열려

대구FC 구단에서도 E석을 주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엔젤존이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FC는 지난 8월26일 강원전을 맞아 대구의 두 스타를 위한 응원존을 E석 엔젤존에 마련했다. 그 이름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대구의 미래 김대원과 정승원의 ‘대승기원존’이다. 이날 ‘대승기원존’에 앉은 팬들에게

김대원과 정승원의 얼굴과 사인이 들어간 가면을 선착순 500개 증정했고, 가면을 쓰고 ‘대승기원존’에서 열심히 응원할 경우 추첨을 통해 전동 휠, 박정현 콘서트 티켓도 선물했다.

하프타임에는 김대원과 정승원을 주제로 ‘라이브 퀴즈쇼’가 열렸으며, 이날 경기에 승리 한 뒤 두 선수가 ‘대승기원존’에 방문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만들었다.

구단은 “선수 사기를 올리고 팬들과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대승기원존’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9월2일에 열린 홈경기에서도 E석은 만원이었다. 이번에는 대구FC의 에이스 세징야의 20득점-20도움 달성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엔젤존에서 열렸다.

이날 세징야존으로 불린 엔젤존에는 세징야 스티커가 들어간 에이스 과자를 선착순 500개 증정했다. 또한 9년 만에 수원삼성을 4 대 2로 대파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세징야는 승리 후 ‘세징야존’에 방문해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며 경기 후에도 뜨겁게 달구어졌다.

추석연휴 마지막 날에 열린 경남과의 경기에서도 엔젤존은 뜨거웠다. 이번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돌아온 조현우를 맞이하는 ‘금의환향(錦衣還鄉)’이벤트였다. 추석과 맞물린 이벤트에서 이번 역시 엔젤존은 대박을 쳤다.

조현우의 금메달 획득을 축하하기 위해 ‘조현우 DAY’이벤트로 이뤄진 이날 행사는 엔젤존에 집중됐다. 실제로 조현우는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엔젤존은 이번에는 ‘금의환향 조현우존’으로 탈바꿈했다. 많은 팬들이 ‘조현우존’에 서 금메달 초콜릿을 받았으며, ‘조현우존’에서 열심히 응원한 팬들은 대어초밥식사권, CGV영화예매권을 받기도 했다. 특히, 조현우의 에어아바타인 ‘대현우’도 조현우 존을 찾아 응원을 함께 했으며, 경기 종료 후 조현우가 직접 찾아와 인사를 하기도 했다.

이처럼 엔젤존이 활성화 되면서 엔젤들의 응원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엔젤들은 깃발을 흔들며 엔젤존을 찾은 일반 팬들과 하나가 됐고, 썸캡과 응원도구를 나눠주기도 했다.

무엇보다 최근 성적이 좋아지면서 엔젤과 관계자들의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골이 터질 경우에는 유럽 구단 경기장과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제 엔젤존은 새로운 응원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엔젤존이 활성화 되자, 각종 방송화면과 신문에 엔젤존과 엔젤룸이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엔젤에 대한 홍보효과도 높아지고 있다.

엔젤클럽에서는 앞으로 엔젤존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젤응원단 유치에 더 힘쓸계획이며, 엔젤 및 엔시오에 대한 홍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문제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낮 경기가 열려 쏟아지는 햇빛이 부담이다. 실제로 9월에 열린 홈경기의 경우 햇빛이 뜨거워져 엔젤존을 벗어나는 관중들이 많았다. 이를 위해 엔젤에서는 추가로 썸캡을 확보해, 엔젤존을 찾는 관중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이호경 엔젤클럽회장은 “최근 성적이 좋아지면서 엔젤 응원단이 늘어나고, 일반 팬들도 집중되고 있어 엔젤존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고다. 가끔 행사 차 본부석에 들릴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반대편에 휘날리는 엔젤깃발과 대형 엔젤현수막 그리고 많은 관중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앞으로 썸캡은 물론 막대풍선 등을 마련해 나눠 주는 한편 엔젤과 엔시오 홍보에도 힘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구사랑 유별난 열혈엔젤의 신명나는 토크

“엔젤의 마음! 부모의 마음”

김유석 김박사 국어연구소 & 진로진학컨설팅 소장

안상영 (주)광진종합건설 대표

양종호 수성구축구협회장

정소영 (주)창성산업 대표

천자우 (주)에슬린 대표

“축구는 나의 인생
엔젤은 좋은 인연”



축구현장에서 영화 같은 이야기 쏟아져

잔디컨디션, 부상, 팀 해체 등 별별 에피소드 가득

‘축구사랑, 대구사랑’을 모토로 하는 엔젤 가운데는 유별난 열혈 축구인들이 있다. 주말이면 아침부터 몇 게임 씩 공을 차야 직성이 풀리고, 부상 중에도 공만 보면 뛰쳐나가는 바람에 가라앉은 부위가 다시 솟아나는 축구 엔젤족들이다. 출출한 오후, 축구에 죽고 사는 엔젤들이 한식당에서 만나 때론 썸데 있고, 가끔은 썸데없는 축구이야기로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지난 여름 모두 힘들었지요. 인조잔디구장의 경우에는 달아올라 정말 힘들더라고요.”

안상영 엔젤은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이야기로 토크를 시작했다. 아무리 더워도 축구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야구빠’에서 축구로 전향한 안상영 엔젤,

축구지존 정소영 엔젤의 물러설 수 없는 입담대결

안상영 엔젤은 원래 ‘야구빠’였다. 대학 다닐 때 야구팀을 창단했을 정도였다. 그는 “지금 축구를 좋아하는 것에 10배 정도 야구를 좋아했다. 대학 다닐 때 야구서클을 만들어 활동할 정도였다.”며 야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랬던 그가 야구에서 축구로 전향한 것은 바로 인프라 문제다. 야구는 동호인 수 대비 운동장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연습경기가 없고, 모두 시합으로 치러야 했다. 그렇다 보니 출전 기회가 쏠리게 됐다. 축구는 야구보다는 운동장 사정이 좀 낫다. 후배들이 좀 더 많은 경기를 뛰기 위해 그는 축구로 전향, 운동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하지만 이제는 갈증을 넘어 새로운 샘물을 찾았다. 지역 언론과 인터넷에 게재되는 그의 글에 요즘 팬이 한 둘이 아니다.

안상영 엔젤이 전향파라면, 정소영 엔젤은 순수 축구파다. 두 엔젤은 남다른 브로맨스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안상영 엔젤이 안타 칠 때 느낌이 ‘끝내준다’고 하자, 정소영 엔젤은 ‘공을 넣을 때는 눈물 날 정도다’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소영 엔젤은 안상영 엔젤이 야구단을 만든 것처럼 축구팀을 직접 만들고 또 해체했어야 하는 아픈 이야기 까지 털어냈다. 점입가경이었다. 쿵푸 허슬처럼 축구와 관련된 폭력 등 수많은 에피소드가 이어졌다.



축구계의 나르시스트 김유석 엔젤

선수출신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천자우 자문위원

ACL가즈아! 해외 엔젤원정대 기대 양종호 엔젤

어려서부터 축구로 잔뼈가 굵은 김유석 엔젤도 대단한 ‘축구빠’다. 모임 중에도 쉴 새 없이 축구관련 전화가 이어졌고, 그는 여유 있게 일정들을 정리해 했다. 김유석 엔젤을 잘 모를 경우에는 혹시 ‘자백男’으로 오해할지 모른다. 하지만 좀 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운동장에서 봤다면 그게 ‘자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축구박사인 그는 길을 잘못 들었다.(?) 지금은 문학박사다. 들어보니 김유석 엔젤에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중학교 때 선수가 되고 싶어 축구부가 있는 모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축구선수로 스카우트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줄 알고 집안이 발각 뒤집어졌다고 한다. 흰칠한 키에 탄탄한 체격의 김유석 엔젤은 포지션도 ‘센타포드’였다. 하지만, 모 경기에서 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지금은 ‘윙어’로 자리를 옮겼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덕분에 ‘큰일’을 치르지 않았지만, 당시 생활축구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 후 그는 상대의 타깃이 되는 센터포드 자리는 내어주고 ‘윙어’자리를 택했다. 여기서도 그의 자존감은 대단했다.

“원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씁니다. 25분 만에 원발로 2골, 오른발로 2골, 그리고 머리로 한골

해서 모두 다섯 골을 넣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원발 오른발을 다 쓰니 팀 사정에 따라 라이트 또는 레프트 윙 어디든 관계없이 됩니다.”

‘양발 이야기’가 나오자 천자우 엔젤자문위원이 나섰다. 이 자리를 마련한 주인공이다. 직접 운동장에서 볼을 차느라 엔젤 행사에 거의 얼굴을 못 내밀었지만 대구FC의 모든 경기를 꿰고 있는 ‘아이러니’한 축구 엔젤이었다. 그는 실제로 학원축구를 거쳐 실업팀에서 뛴 이력이 있는 말 그대로 ‘축구선수’다. 몸 관리도 철저하다. 매일 아침 4킬로미터를 걷고, 또 3킬로미터를 뛴 정도다. 그가 말하는 ‘양발잡이’에 대한 설명은 선수출신의 깊이가 느껴졌다.

“아마추어 선수가 양발을 쓰는 것 하고, 프로선수가 양발을 잘 쓰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아마추어는 그냥 편하게 오른발, 원발에 맞춰 그 타이밍에 그 발을 쓰지요. 그런데 프로는 오른발 쓸 타이밍에 원발로 차야할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에 편한대로 공을 차면 상대선수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 걸 두고 진정한 양발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축구는 모두를 순수하게 만든다. 지금이야 지역 사회에서 자리 잡은 어엿한 리더들이지만,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처럼 신이 났다. 대표적인 인물이 양종호 엔젤이다. 평소에도 유럽 명문 축구팀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다니면서 ‘나는 축구인이다’를 대놓고 드러내는 양종호 엔젤은 최근에 받은 엔젤티셔츠에도 패치를 달아 완전 축구식으로 바뀔 뻔했다. 축구라고 하면 해외 유명 구단 투어는 물론 지금도 서울 등 먼 곳도 원정 다닌다. 창단 때부터 주주로 참여했으니, 대구FC의 산증인이다. 그에게 ‘축구’가 없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그는 대구FC의 FA컵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도 한번 ACL나가보자!”

**전반기, 주전부상, 외인부진, 패배의식 팽배
후반기부터 영건들의 대활약, 판을 뒤집었다!
막판 몰린 인천·전남 고비 넘으면 1부 잔류가능**

즐겁고 신나는 자리였지만, 축구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고, 깊었다. 모두들 대구FC 경기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눈으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 걱정이 많았다.

“올 초 외국인선수들이 제몫을 못한데다, 감독도 시즌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 의욕이 앞섰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제 포지션을 찾지 못했어요. 특히 시즌 초반 전력의 50%라 할 수 있는 세징야가 나오지 못하면서 6연패했고, 억울한 경우도 있지만 신인급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다 오히려 퇴장당하며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안상영 엔젤은 특히 외국인선수들이 부진과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로 전향했던 선수가 다시 공격수로 출전 한 대목이 아쉬웠다고 했다. 가능성 있는 젊은 공격수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후기에 이들 영건의 힘이 상승세에 바탕이 된 것을 보면 안상영 엔젤의 분석은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이긴 경기 보다는 진 경기에 주목한 정소영 엔젤은 진경기를 보면 대부분 중원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팀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비효율적으로 많이 뛰는 바람에 막판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많았다고 했다.

천자우 엔젤은 빌드업의 실패와 창의적인 패스부재를 부진의 이유로 꼽았다.

“중 패스가 많아야 창의적 플레이가 살아난다”는 천 엔젤은 “횡 패스를 하다 보니 도중에 차단되고, 곧바로 역습을 당하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빌드 업 할 때부터 중 패스를 해야 팀 전체가 흐트러지지 않는데 올 해 초반에는 그런 창의적인 패스가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김유석 엔젤은 “대구FC는 과거 이근호 선수부터 해서 좋은 활약을 보인 자원들이 해마다 팀을 떠났다”며 “이로 인해 시즌 초에는 항상 스쿼드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구조적인 원인에 접근했다.

양종호 엔젤은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시즌 초반에 주전 선수들의 줄 부상과 믿었던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 등으로 연패를 하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문제였지만, 선수들의 사기 저하와 패배의식이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 회복, 영건활약 상승세 요인

축구엔젤들의 분석은 곧 대구FC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었다. 실제로 후반기 대구FC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상영 엔젤은 “후반기 들어 외국인 선수가 빠진 자리에 젊고 가능성 있는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상승세를 탔다.”며 “연령별 대표를 거친 김대원을 비롯 정승원, 홍정운, 정우재, 그리고 조현우의 빈자리를 잘 메워준 최영은 등 대구의 복덩이들이 자신의 몫을 해주면서 팀이 안정돼 갔다”고 했다. 특히, 그는 강윤구의 영입을 주목했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목포시청에서 영입됐지만, 그의 영입으로 정우재가 제자리를 찾아, 자신의 플레이를 하면서부터 팀이 조화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부진의 원인을 중원에서 찾았던 정소영 엔젤은 상승세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를 보면 확실히 간격이 좁아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탄탄해지니 오히려 상대팀이 허물어지며 간격이 벌어지더라고요. 9년 만에 대승을 거둔 수원경기가 대표적인 사례지요.”

안상영엔젤 역시 수원전을 올해 최고의 경기(9월6 일기준)로 꼽았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세징야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눈부셨다는 것이다.

“아시안게임 때 손흥민 선수는 평소와 달리 골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전체적으로 팀이 살았어요. 대구의 경우도 세징야가 수원경기에서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여러 선수와 공을 주고 받으며 중원을 탄탄하게 만들었어요.”

수원 이야기가 나오자 천자우 엔젤도 거들었다. 그는 정우재 선수의 활약에 높은 점수를 줬다.

“정우재선수가 빌드 업 하는 과정을 보면 즐거워요. 중원에서 빌드업 할 때 상대선수가 세징야를 막 못하도록 패스하더라고요. 세징야가 자유로워지니까 수원 전에서 것처럼 멋진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대구FC의 큰 자산이다. 양종호 엔젤은 젊은 선수들이 출전시간을 늘이면서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초반에는 자주 지다보니 선수들이 패배의식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버겁다 싶은 팀에게도 승리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여유를 갖게 됐어요. 이기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유석 엔젤은 여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자세도 한몫했다고 했다.

“요즘 여성분들도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원전의 경우 9년 만에 앞서가고 있어 잠글 만도 한 데 끝까지 빌드 업하고 자기 플레이를 하는 등 좋은 경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과정에서도 승리를 한 것이지요.”

대구FC의 상승세에 대한 이야기가 무르익자, 이제 끝장을 봐야 했다. 올 시즌 예상 순위와 전망을 들어봤다. 정소영 엔젤은 지금 같은 분위기면 강등권은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막판 강등권에 몰린 인천, 전남과의 연속 경기였다.



이들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잔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상영 엔젤은 현실적인 순위를 꼽았다. 9-10위다. 인천, 전남 등 막판까지 강등경쟁을 할 것이라고 뻑뻑하게 전망했다.

천자우 엔젤은 10위다.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모든 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징야 등 상승세에 있는 우리 선수에 대한 파악도 다 됐을 것이란 이야기다. 그는 안상영 엔젤과 마찬가지로 인천전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종호 엔젤은 현재 남은 팀들의 전력을 감안할 때 대구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실었다. 예상 순위는 8위다. 김유석 엔젤도 8위다. 그는 다만,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지금의 상승세가 유지되기 어려운 만큼 매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잔류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라고 했다. 한 발짝 밀리면 한순간 벼랑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고의 관중은 학부모 마음’ 엔젤도 학부모처럼!

행복한 축구토크! 다음 모임 기약하며 마무리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토크는 당초보다 길어졌다.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훌쩍 넘겼다.

마무리는 안상영 엔젤이 했다. 선수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안상영 엔젤은 워업 시간에 누가 쪼기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할 정도로 애정이 깊다.

“최고의 관중은 바로 학부모”라는 안상영 엔젤은 “초중고 등 유소년 선수의 학부모야말로 가장 축구에 흥미를 느끼고 가슴 졸이며 경기를 본다. 바르셀로나나 레알마드리드 관중 보다는 더 열혈관중이다.”며 “우리 엔젤이 모두 대구FC선수들을 학부모의 마음으로 응원한다면 경기는 더 재미있고, 거기에 빠져들 것”이라고 마무리 해 참석자들을 가슴을 찡하게 했다.

천자우 엔젤이 마련해 성사된 첫 만남! 시간은 아쉬웠고, 여운은 길었다. 아쉬움에 정소영 엔젤이 다음 모임은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내일을 기약했다.

(이 기사는 9월6일 삼천궁 한식당에서 열린 모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 달려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무료급식 및 사랑의 쌀 지원 등 복지시설 후원
대구·경북 체육 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청소년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서문시장 화재 복구 성금 후원
포항·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영덕 태풍 피해 복구 성금 후원



대구FC의 내일을 위한 대구엔젤의 찬란한 고독

젊은 시절, 수 십 편의 희곡과 시나리오를 쓰며 언제나 가슴 한켠에 동경하는 문학인이 "이방인"의 카뮈였다. 알제리 대학의 축구선수였던 그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부조리(不條理)"다. 인생이란 조리에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말이다. 따지고 보면 20세기의 부조리(不條理)란 사조는 카뮈만이 아니라 부조리극의 작가들은 셀수 없이 많았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도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사무엘 베케트도 답을 모른다고 관객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투명한 약속과 희망을 버리기 보단 기다림을 간직하며 산다. 극중 대사 중 "오지 않는 것은 절망이지만,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다"란 대사를 접할 땐 '이건 에러다'라고 썩은 미소를 지으며 베케트를 조롱한 적이 있었다. "기다린다"는 행위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해석이 편이나 안일하고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난 "고도"를 포기하고 "기다림"이란 희망스런 잡담이라 생각하며 대구를 살아갔다.

남산국민학교,영남중학교,달성고등학교를 나온 나는 뱃속까지 대구사람이란 문패를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다. 근데 어느 날인가 대구가 "경제는 몰락하고, 자존심은 무너진 "BrownCity (몰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대구에서 떠오르는 해는 언제나 내 가슴을 두드렸지만 공허함과 절망감에 지친 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았다.



▶ 안데스 산맥을 넘어



▶ 우유니 소금사막에서

그래서일까? 한동안 난 설렘을 잊어버렸다. 2018년 7월 낮선 풍경에 설렘이란 마음에 빠지고 싶어 난 25일간의 남미여행을 떠났다. 해발 4000미터에 마치 우윳빛 거울처럼 소금으로 뒤덮인 우유니 사막을 보고 '과연 이곳이 지구별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6개국 7000km 길이의 고도 안데스산맥을 오프로드 지프차로 달리며 만년설이 만들어 준 차가운 공기로 '어제란 현실'에 무기력해진 온몸을 샤워하였다. 고도 3600미터에서 보름이상 식사를 하고 잠을 자며 지낸 남미의 최빈국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와 잉카제국의 수도로서 묵직한 역사를 상징처럼 지니고 있는 페루 쿠스코에선 고산병을 피하기 위해 걸음도, 식사도 조심스레 하여야 했다.

볼리비아 거리에서 편이나 인상적이었던 건 족보도 없는 그 나라의 축구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곳곳에 모여 맨땅에 볼을 차며 스트리트 축구를 연주하는 현지인들의 일상이었다. '그래, 이마저도 없다면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란 마음은 귀국 후 8월26일까지 변하지 않았다.

시차가 적응되기 시작한 8월의 마지막 일요일 엄청난 비가 아침부터 쏟아져왔다. 대구의 지인이 추천해 들어간 "대구FC 엔젤클럽" 단독방에서 저녁7시부터 비가와도 강원전이 열린다는 안내문을 봤다. '축구란 종목은 이런 빗속에도 하는구나'란 놀라움과 함께 신기한 마음이 들었다.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나 홀로 빗속의 축구를 봐야겠다 마음을 결심으로 발전시켰다.

개인적으로 프로스포츠 경기 중 가장 관심이 없던 종목이 축구였다. 암표까지 구해 관람한 프로야구, 아들을 데리고 간 프로농구와 비교자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1년 대구를 홈그라운드로 활동하던 동양오리온스가 경기도 고양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걸 보고 지금까지 프로 농구는 TV로도 보지 않는다. 오리온 초코파이도 한동안 눈길도 주지 않았다. 삼성라이온즈도 신축한 야구장에 삼성이란 이름을 붙이기에 꺼려한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내겐 지역을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를 보는 즐거움이 내 일상에서 빠져버렸다.

세상을 살다보면 갑자기 ‘충 맞은 것처럼’ 또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가 사라질 때가 있다. 8월26일 혼자 우산을 쓰고 경기장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축구장에 들어간 그 순간이 그랬다. 칸트처럼 모든 것이 “에포케” 판단중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내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났다.

빗속에 사력을 다해 뛰는 대구FC선수들, 6만8천석 축구장을 전혀 공허하지 않게 응원하는 관중, 이 선수와 관중들을 안아주는 듯한 대구FC엔젤을 보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대구란 대지에 뿌려주는 꽃처럼 찬란했다. 그들은 나 같은 불평자들의 ‘거룩한 불만을 하늘님의 비전’으로 돌려주는 사역자와 같았다. 그리고 운동장의 소리는 마치 메시아처럼 다가왔다.

이런 표현에 거부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대구FC엔젤에 대한 이런 나의 느낌이 대구FC를 응원하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일상에 춤을 추지 않고 어찌 다른 이들에게 ‘춤춰라’, ‘희망하라’ 말할 수 있을까? 난 축구장에 들어섰을 때 ‘내가 춤출 수 없다면 그건 대구가 아니다’라는 함성이 나의 귀가 아닌 가슴을 크게 울렸음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 글을 쓰고 있자니 발칸의 한 나라가 데자뵈로 다가왔다.

9년 전 크로아티아를 여행할 때 숙소 밖에서 밤이 새도록 축포를 터뜨리고 흥겨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유는 마을 축구 대항전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축구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파티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크로아티아는 1991년 너무도 끔찍한 내전을 겪은 국가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나로선 축구가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행복으로 변지게 한다는 사실이 몹시 흥미로웠다. 그리고 승전을 자축하는 크로아티아인들이 고마웠다.

아름답지만 인구400만의 왜소한 국가 크로아티아는 2018년 월드컵 준우승으로 감동을 세계에 선물했다. 전후반 지속되는 경기에서 그 누구도 선수교체를 원하지 않았으며 선수 전원 모두 ‘나는 더 뛸 수 있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달리치 크로아티아 감독이 남긴 이 한 마디는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크로아티아의 주장 루카는 준우승하고도 대회 최우수선수인 ‘골든 볼’을 수상했다. 34세 노장이지만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694분을 뛰었다. 처절한 혈투로 휘청이는 다리를 투지로 재충전 해 나갔다.

대구FC 시합을 처음 본날 감동이 온몸을 감쌌다. 관중과 선수들은 하나같이 “라스트 맨 스탠딩”이다.

대구FC엔젤스는 “한몸의 지휘자”처럼 내눈에 그려졌다.

그리고 나의 “리베로”카뎬가 내 귀에 속삭인다. “노벨상 받을 때보다 골키퍼로서 축구공을 잡을때가 훨씬 좋아 축구는 희망이고 대자유니까! 대구FC엔젤에 가입할 수 없을까?”



표병관 엔젤
(주)지에스탑 대표

“비가 와도 나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대구FC GK 최영은



Angel & People



송준기 엔젤, 2018 대구세계합창축제 개최

송준기 엔젤 자문위원(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장)은 10월 16일부터 18일 까지 전 세계의 명문 합창단을 초청하여 깊이 가는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채운 2018 대구세계합창축제를 개최했다.

반용석 엔젤자문위원 대구FC방문

반용석 엔젤자문위원(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은 10월5일 대구FC를 방문, 조광래 대표와 접견하고, 10월20일 열린, 국제로타리3700지구 브랜드데이와 관련해 구단 사무국과 협의했다. 이 날 5천여명의 로타리안들이 대구FC 홈경기를 찾을 예정이다.



엔시오 확대방안 간담회

김완준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엔시오 확대방안을 위하여 10월6일 엔젤룸에서 이태훈, 정소영, 송원배 상임이사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향후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10월20일 '로타리안 데이'를 맞아 엔시오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운영본부 간담회

강병규 엔젤운영본부 상임부회장은 10월5일 안상영, 송원배, 강정영, 김강수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운영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본부의 역할과 후원납부, 회원영입릴레이, 경기장 참여를 활성화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Angel & People



엔젤본부 간담회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은 10월4일 정영준, 백무연, 안홍운 상임이사와 함께 엔젤본부 간담회를 갖고, 신규임원진 구성 및 분과별 업무분장에 따른 역할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토의 했다.엄부회장은 최근 자비를 들여 엔젤 깃발을 제작하는 등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다.

백서재 대영전자(주) 대표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

백서재 대영전자(주) 대표가 11번째 다이아몬드의 주인공이 됐다. 백서재 대표는 엔젤의 활동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가치, 그리고 열정에 감동해 흔쾌히 1천만원을 후원, 제 11호 다이아몬드 엔젤이 됐다. 다이아몬드 엔젤은 연 1천만원을 후원한다.



엔젤원정대 원정응원

엔젤본부는 엔젤회원들로 구성된 '엔젤원정대'를 모집, 9월22일과 30일 상주시민운동장과 포항스틸야드로로 연이어 원정응원을 펼쳤다. 두 차례에 걸쳐 100여명의 엔젤이 원정에 참석했으며 상주전에서는 5대2로 대승을 거두었다.

진광석 엔젤, 생후 22일된 아이와 홈경기응원

진광석 엔젤(진성축산대표)은 9월2일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 생후 22일 된 아이와 함께 대구스타디움을 찾아 엔젤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지금까지 많은 엔젤들이 자녀와 함께 경기장을 찾았지만 생후 22일은 처음이다. 복동이 덕에 대구는 수원을 9년 만에 4대 2로 대파했다.



Angel & People



이호경 회장, 엔젤번개팅 개최

이호경엔젤클럽회장은 8월30일 강원전 대승을 축하하기 위하여 디퍼스트에서 엔젤번개팅을 개최, 40여명의 엔젤이 모여, 승리를 자축하며 앞으로의 선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날 이상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참석, 엔젤에 가입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윤종현 엔젤, 수성문화원 원장 중임

윤종현 엔젤(수성문화원 원장)이 9월27일 열린 수성문화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중임에 추대 됐다. 새 임기는 4년이다. 윤 회장은 "수성구 문화융성과 향토문화 발전에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향토사 연구, 수성사직제, 이서공향사, 상화문학제, 고모령효예술회 개최 등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중 엔젤, 암웨이 파운더스다이아몬드 성취

김세중 엔젤(암웨이)이 암웨이 파운더스다이아몬드를 성취하는 영예를 안았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소비자로부터 시작해서 제품에 대한 감동을 주변에 권유하고 추천하는 리퍼럴 마케팅의 원조로 팀 리더를 여섯 계열 이상 키워내야 성취할 수 있다

엔젤클럽 회장단, 대구축구전용구장 방문

엔젤클럽 회장단은 8월 중순,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대구축구전용구장을 방문, 엔젤들과 명예의 전당이 들어설 공간을 살펴보는 등 현장을 답사했다. 엔젤은 전용구장 완공과 함께 경기장 만석을 위한 '만원의 만원'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Angel & People



정영만 엔젤, 유소년 축구단 응원

정영만 엔젤은 7월28일 대구FC U-12팀인 신흥초등학교와 대구시 축구협회의 초청으로 내한한 일본 교토부의 조요시 유소년선발팀과 친선 경기가 열린 신흥초등학교를 찾아 경기를 관전하고 양국 선수단을 격려한 후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최태원 엔젤, 제14회 레인보우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참가

최태원 엔젤(대구축구협회 부회장)은 7월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열린 제14회 레인보우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대구시체육회 선발전팀을 인솔하여 대회에 참가하였다. 최태원 엔젤은 이미 지난 1996년부터 이 대회에 참가해 오는 등 지역 유소년들의 국제교류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왔다.



이호경 회장과 김학규 원장의 만남

이호경엔젤회장이 지난 7월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기업 한국감정원 김학규원장을 방문, 사인볼을 전달하고 앞으로 엔젤과 함께 대구FC와 지역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문경출신인 김학규원장은 이호경회장의 엔젤에 대한 설명에, 엔젤의 자발적인 활동과 역할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

이재하 다이아몬드 엔젤, 엔젤룸 방문

다이아몬드 엔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7월 대구FC와 FC서울전을 응원하는 대구FC엔젤클럽룸을 찾아와 엔젤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재하 회장은 "엔젤클럽은 대구FC의 후원을 넘어 대구경제의 엔진역할을 해나갈 대구의 보석들"이라고 말하고, "대구경제인들과 더불어 영원히 엔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Angel & People



이호경 회장,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과 만남

이호경회장이 7월17일 DGB금융지주 김태오회장과 만나 엔젤의 가치와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대구와 대구FC 사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호경회장은 'DGB대구은행과 시민엔젤이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대구은행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을 착용한 조현우 선수의 사진을 김회장에게 전달하며 함께 환하게 웃으며 기념촬영을 했다.

배성혁 엔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배성혁 엔젤(DIMF 집행위원장)은 제 11회 제주해비치아트 페스티벌 문화예술인상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DIMF 설립멤버이자 집행위원장으로 DIMF를 8년간 이끌어 대구를 뮤지컬 도시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용모 엔젤, 인도네시아 경전철 사업 참여

안용모 엔젤(대경대 명예교수)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1단계 경전철 개통에 이어 2단계 경전철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철도공단의 외부전문가로 현장조사와 자문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전철 사업에 참여 했다.

김강수 엔젤, 엔젤 사무국에 복사기 기증

김강수 엔젤은 사내 경매를 통해 복사기 2대를 구입, 엔젤 사무국에 기증했다. 딸과 함께 직접 복사기를 들고 왔으며 포토존에서 기념촬영 했다. 김강수 엔젤은 엔젤클럽 이사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Angel & People



엄태건 상임부회장, 메디엑스포 성공리에 마무리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대구의료기협회 회장)은 지난 7월 엑스포에서 열린 메디엑스포에 참석, 대회 성공에 한몫했다. 메디엑스포는 의사·한의사·치과·약사·간호사 등 의료 전 분야에 걸쳐 1만 여명의 의료인을 포함해 의료기기·병원·제약·한방분야를 통합해 지역은 물론 영남권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2018 대구경북미스코리아, 엔젤클럽 방문

2018 대구경북미스코리아들이 지난 7월 엔젤클럽을 찾았다. 이들은 엔젤사무국에서 엔젤의 활동과 가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Angel & People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다이아몬드 엔젤

※ 본 명단은 가입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Diamond Angel 11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엔젤클럽 자문위원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대표	송준기	지산치과원장
김성열	(주)아나 대표	엄달현	(주)대창엘코 대표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대표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대표
김충환	김창준한미래재단	장익현	변호사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	주대중	함창정학재단이사장
도재영	(주)웅진기업 대표	천자우	(주)에슬린 대표
박명수	명진금속 대표	하운수	한국공조 대표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 부총장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원장	허흥만	(주)명성글프 대표
반용석	반지와 원장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대표	엄태진	(주)태준메디칼 대표
김원준	(주)JD 대표		

엔젤클럽 부회장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석원	동진건설(주) 대표	신용범	(주)한미산업 대표
김재홍	대호약품 대표	윤태경	바로본병원 원장
김주성	광개토병원 원장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대표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대표	이승현	(주)동서개발 대표
박동규	한국디자인 모형(주) 회장	정모경	정원자카텍 대표
박해대	미래테크(주) 대표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대표
배성혁	DIMF 조직위원장	최익진	(주)풍국면 대표
서정원	(주)대선 대표	황종길	성신내장건설 대표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강민수	세영회계법인	권오훈		김범대	미플러스피부과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권일경	(주)위드	김범현	한라이엔씨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권장대	(주)세화정공	김병렬	오성고속관광(주)
강병호	(주)신경일염직	권재원	(주)아우노	김병오	필즈학원
강보철	일진수지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	김병찬	건축사무소한동
강삼동	(주)에이치	권정미	S라인 포톤 테라피	김봉찬	(주)리치하우스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권주택	(주)감산전기	김상길	(주)미래세한 감정평가 법인 대구지사
강신일	(주)대영에코건설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김상덕	부경TS
강영철	에스에스엘엠(주)	권혁기	(주)산동개발	김상도	
강은주	한국일보	권혁준	요셉 성형외과	김상섭	(주)티브로드 대구방송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금윤식	(주)폴드브릿지	김상수	청운신헌
강의민	(주)일신건설엔지니어링	김갑태	(주)동화주택건설 / 주)아름	김상완	(주)한백종합기술공사
강일규	대서산업(주)	김강수	푸르멘셜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강일만	(주)신엔지니어링	김경태	리더스 금융센터 주)센트럴	김상원	부조채어원(주)
강정숙	(주)동재건설	김고용	(주)명종스틸	김상호	(주)내일건설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본부장	김관식	더나은요양병원	김상훈	(주)모던테크
강준기	포머스	김광덕	대구시 사격 연맹회장	김상희	대상트골프
강철원	(주)에일 YEIL	김광배	(주)디에스종합건설	김 석	삼덕아스콘
강태중	(주)한도엔지니어링	김광수	(주)한백창호	김석호	한도식품
강해구	경민테크	김국경	(주)세영디앤씨	김선일	(주)상일종합관리
고경집	부부엔젤	김규일	(주)세원이앤지	김성렬	(주)대성건설
고민환	주식회사 상산건설	김규정	삼성생명	김성률	
고백희	디자인 '감'	김규혁	포위즈시스템	김성열	(주)아나
고삼규	보광병원 병원장	김기섭	덕수복지재단미소마을	김성준	G&B오토모빌(주)
공영우	동성건설	김기완		김성호	(주)오상인터내셔널
공윤옥	선진회계법인	김기철		김성호	(주)성산종합건설
공인옥	(주)백향에스엔피	김길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김세종	(주)전공산업개발
곽기철	지우C&D	김남호	더원창호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턴트
곽덕섭	(주)태명건설	김나나	세영회계법인	김수현	한청대구지회
곽동호	곽치과병원	김대경		김숙현	세원 공인중개사
곽신혁	eco farm(주)	김대엽	(주)대영일무선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곽재환	(주)중산도시개발	김덕진	(주)우진비철	김순조	삼성생명
곽재훈	윤경재단	김덕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김순조	동춘흥
곽종준	KMI에셋 (메리츠화재)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김승근	대구일보
곽준성	삼성전자	김동구	금복주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김승필	(주)삼성프린팅솔루션
구건우	PR네트웍스	김동규	(주)법서	김시보	백두산업
구명임	(주)크린포시스템	김동섭	대구가톨릭 대학교	김시승	(주)다인
구미숙		김동연	우성디앤에이	김안순	화이트골드
구본도	렉서스 대구	김동용	(주) 씨엠	김예경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김동우	World First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권광	행복을 심는 치과	김동읍	(주)조광종합포장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권대열	(주) 부인	김동재	골마켓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대외협력실
권병규	화인산업	김동조	플레이위즈	김영식	영건전공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김말분	부부엔젤	김영엄	지디종합건설(주)
권상현	홍천사(주)	김명수	대남건설	김영주	주식회사 경북합판
권석원	동진건설(주)	김명용	(주)명성	김영준	변호사
권성숙	결혼정보회사 바로연대구지사	김명웅	DGB생명 AM사업부	김영채	안정회계법인
권승진	정산인터볼고CC	김명진	한신특수가스	김영택	일월건설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김무길	삼성전자 무비스 B2B	김영화	(주)영화
권 업	대구테크노파크	김묵진	대구서부지청	김영희	구병원
권연숙	교육장	김미경	(주)에코파이코텍	김오동	명신종합건설(주)
권영갑	(주) EMS	김미숙	주원	김완준	(주)케이아이디
권영식		김민식	(주)서한	김외경	아미코젠
권오상	변호사	김민선	의사회	김용규	창녕 캄우 축산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김민지	스피지김교육	김용범	(주)에스알
권오훈	아름다운건설	김민태	제이와이 건설 대구지점	김용봉	(주)와이즈리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용식	(주)정백산업	김태형	피엔에이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김용운	(주)태하시스템	김태호	공간포유	민재철	(주)뽕논아이들
김용찬	(주)보광건설	김태훈	태경건설	민춘홍	한국PIPE
김우일	김샘 교육	김판권	(주)명산	박경국	(주)성우 아이디
김원은	우경정보기술(주)	김한수	마이스사업연구원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김원희	동경Tour	김해용	인덕염공(주)	박경우	(주)현창건설
김유식	김박사 국어연구소 & 진로진학컨설팅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박경진	해나 C&D
김윤곤	부성주식회사	김현수	대호기업	박경환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
김운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김현숙	(재)한국의학연구소	박관식	명진BS치과
김익수	(주)화신종합건축개발	김현철	에인에이(주)	박금화	서라벌대학
김이수	체리티홀딩스대표	김형동	대구시체육진흥과	박기양	세무사
김인수	대호화학산업	김형식	(주)동인전력	박기원	아트건설
김인식		김호용	건강누리(주)	박기자	(주)무영
김일권	삼성생명	김호준	준 애니팜	박길상	남북의료기상사
김재엽	하우스탑디앤씨	김홍근	건축사무소 ADF	박대진	(주) 이비팜
김재우	삼일기업	김홍석	디지털산세기	박동규	(주)한국디자인 모형
김재필	(주) 주안	김홍식	대경대학교	박동술	성동제동의원
김재필	산록 도서관	김홍철	한청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김재혁	잉글리쉬 유니티티드	김휘종	주)굿유피름	박래석	(주)삼우전자통신
김재홍	대호약품	김홍수	주식회사 이명E&C건설	박명수	명진금속
김정미	멀티에드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박미경	삼성요양센터/자인삼성요양센터
김정수	부부엔젤	김희찬	PEGDYCCO	박민천	(주)다온PLUS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나광무	엘리바덴 온천	박병구	대구미술협회
김정철	경북대학교보통이식센터	나상수		박병규	
김정희	김정희건강피부관리실	남경원	(주)정일덴탈	박병욱	달인의 점담/대한구국보훈회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남규동	다에이지지	박병준	HC 보광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남병환	국제로타리3700지구	박석현	(주)TBC
김종원	금익의수족보조기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박성욱	(주)삼송BNC
김종철	주식회사 신흥버스	남재현	(주)러버린	박성준	미래테크/가족엔젤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노기원	(주)태왕	박성진	폼그린
김종호	(주)케이원	노병수	영남일보	박성호	금강운수(주)
김종환	(주)메디피아앤씨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박성훈	(주)퍼닉스건설
김종훈	영남대학교의료원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박성희	(주)AK메디 / (주)한올홀딩스
김종희	웨딩하모니	노정섭	대어초밥	박세정	링크샵 커뮤니케이션
김주성	광개토병원	노주호	(주)대성아이디	박소민	디자인그린
김주형	웨딩콜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박소이	미래테크/가족엔젤
김주환	(주)경안플랜트,경안솔라	노혜영	부부엔젤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김준현	세무법인대명	농협두류은행		박승국	아시아요양병원
김준현	가림건축사무소	농협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박승환	(주)저것집 통닭
김준홍	한청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대구총국	박승현	
김중곤	인슈미디어그룹	도건우		박신영	하나투어
김중곤	ADT캡스	도재영	웅진기업	박신제	PSJ창업네트웍스
김지건	의사회	두준옥		박영석	계명대학교 교수
김지미	(주)시마	류광열	(주)원재산업	박우용	(주)대산라이팅
김진수	엔에이골프	류시장		박우호	
김진수	(주)천우	류영애	세무사	박운락	한청
김진엽	송산엔앤씨	류형우		박원득	한봉금속
김진일	무창산업	류호중	신라산부인과	박원진	가인건설
김정식	(주)경북합판	류훈	중앙세라믹스	박윤경	KK주식회사
김창욱	한청	문길남	신세계건설 주식회사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김창호	신호전기	문문문	(주)디에스피	박은이	(주)슈만
김창희		문성균	홈타홀딩스	박인호	(주)삼영이앤티
김준희		문수영	(주)에플에드벤처	박재관	제일푸드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문영일	(주)태흥	박재범	AIG어드바이저/대구지역본부
김치호	주식회사 도영건설	문재혁	(주)동아티오엘	박재영	(주)웹시안디앤씨
김태길	피엔에이	문종혁	(주)동화건설	박재현	(주)신우씨엠디
김태순	팔공온천 호텔	문준기	대경맥주(주)	박점희	플라워아트 / 한국화원협회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박정기	진성, 일진종합건설	배인호	성호건설(주)/ 경북건설협회	성정용	(주)인도시건설
박정민	(주)한여행사	배장수	진명전력 주식회사	성정화	
박정배		배종길	IPM 코퍼레이션	소정호	미래테크
박정희	세무사	배종찬	기성광고	손동태	미래테크
박종철	(주)우일건설	배창희	인덕텍스타일	손동현	동원케이بل
박종호	(주)삼정 종합페차장	배태관	백산자카드(주)	손민호	동서가스
박종홍	금융개발	배혜민	(주)팔도에프씨/토끼밀	손병갑	(주)성도
박종화	세보종합건설 (달서구 축구협회 회장)	배효삼	(주)달구벌석권	손상명	신아개발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백건호	(주)경동BK	손상주	천하장사
박준	계림물산(주)	백경애	부부엔젤	손성태	성진포머
박준규	(주)이노커뮤니케이션	백덕일	지오 종합건설	손수완	(주)수경
박준섭	박준섭 법률사무소	백두연	뷰티코하트/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손영훈	성도팩
박준수	한창	백복근	호텔 라온제나	손원배	태명약업사 태명헬스케어
박종희	(주)TS 스틸	백순정	네추럴프러스	손인락	
박지훈	농협중앙회 - 고령축산물공판장	백영기	아름다운 사람들	손인택	(주) 서한
박진	진보상사	백용환	미래테크	손주옥	(주)한국재무설계
박진숙	동일가구	백운규	우림종합엔지니어링 /온마건설	손중배	(주)유레카
박진우	(주)효성종합 건설	백운일	(주)백강테크	손지영	삼성디지털프라자 경산점
박진한	유에이디	백을수	(주)국제ITS	손형문	대진렌탈
박진향	어번라이팅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송남희	본죽 시지점
박찬력	경북봉투사	백현석	의사회 더블유병원	송대선	
박찬직	공인회계사	변창훈	대구의한대학교	송미향	(주)현대미주여행사
박찬하		변향숙	돈모닝 식당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박창오	신화엘스앤드의료기	서기수	즐거운 세상 / 호텔 인터볼고	송원배	(주)대영씨앤디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송정우	
박춘영	인터볼고CC	서상인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박태민	뮤직라운지 팬트하우스	서상협		송준호	한국 PIM
박태정	주원조경	서상환	현대개발	송진오	(주)아이에스메이드
박한상	감울상사그룹(주)	서성도	독일 SEO 밸런스 운동센터	송재은	부부엔젤
박한석	팔공 컨트리 클럽	서순옥	부부엔젤/미래테크	송춘희	아이투어
박해대	(주)미래테크	서영득	색동기방	송해신	하나은행
박해동	경북 요양병원	서정우	신성기업 / 포그니코리아	신경우	(주)부창솔라
박해연	유진제지	서정옥	광고회사 MSC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박현경	대구경북의사회	서정원	(주)대선	신기영	ARSTROMA
박현근	브라이트	서정원	효성그라비아효성렌탈이벤트	신선영	대구 미래대학
박현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서종균	대경전력	신성철	(주)동원섬유산업
박현주	장아푸드	서종환	제일종합배관(주)	신성필	(주)세양
박혜영	기정주부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신연화	밸런스워킹
박혜은		서중호	(주)아진산업	신영필	주노캐피탈
박홍철	(주)신흥메탈	서찬근	(주)E하얀바다	신용범	(주)한미산업
박홍라	샘터정보기술(주)	서찬교	대원전기	신재열	(주)안다미로
박홍식	NS디자인	서철현	대구대학교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
박희경	도미니크	서태일	(주)에스타아이	신정원	"IT여성기업인회 (주)한국센서"
박희진	은성북어	서태현	(주)산동개발	신철균	다모 건축사
반용석	반지와	서형석	투썸플레이스 / 서린디자인	신철수	
반정옥	미르건축	석경환		신현창	(주)옥일디자인 / 원더풀스파랜드
방우정	리더스	성경환	성경건설	신호철	플러스메드 / 삼성메디슨
방천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달표	현대통상 대표	신화섭	여행박사
배극중	씨엘비건설	성무용		신희득	(주)용성건설중기
배명수	근영토건	성병철	(주)디자인JSP	심건희	(주)천지재건
배문구	승창집장	성부영	정일건설(주)/삼역건설(주)	심상형	
배성원	상원종합식품/오대양식품	성석훈	(주)대덕건설/ (주)명덕건설	심인철	동명테크윈(주)
배석우	에스와이하우징 대구경북총판 / 세중정공	성수환	신영남산업 주식회사	안상영	광진종합건설(주)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덤프) / 예술기획 성우	성순화	피플라이프	안성용	(주)엔디스코나
배영호	(주)영신F&S	성점화	(주)다원아이디 (주)뉴프라임	안용모	경일대 석좌교수
배우균	카이도 코리아	성정용	(주)신도시건설	안조셉	미래테크
배인규	한남라이팅	성정화	(주)다원아이디 (주)뉴프라임	안종수	태권도협회회장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안준태	예진건설	이경훈	웹미리회원권 거래소	이양구	(주)에코텍
안태현	태현전력	이광해	아사다라	이영순	부부엔젤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이기식	(주)현대스텐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양대석	(주)약령시 사람들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이영웅	(주)다자인로움
양승섭	(주)대경	이대영		이영준	신경건축자재센터
양승혁	인문사	이대우	기운산업	이영호	
양은지	디자인	이대형	세계실업(주)	이용재	석문전기
양종호	수성구축구협회/현대자동차 북대구지점	이덕록	(주) 서보	이원영	(주)평산개발
엄경록	(주)대철	이덕현	디스이즈모든	이원우	한은 이앤씨
엄관식	엄관식 수학교습소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이원찬	(주)아진산업
엄달현	(주)대창엠코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윤성	
엄복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주)	이돈관	(주)우수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엄용선	(주)동내방내소식	이동건	SK건설	이윤환	미래테크
엄재국	(주)포맨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이윤희	한국알카리수A(주)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이동관	매일신문	이은수	
여승훈	상록수재단	이동평	(주)자비스	이은준	(주)S홀딩스
여태용	세계 주류 대표	이동섭	울스타당구클럽	이웅찬	(주)건화
예영숙	삼성생명	이동성	(주)홍맥 건축디자인	이익재	(주)세신정밀
예준호	요셉성형외과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인선	대구경제자유구역청
오기우	(주)엘리건스	이동원	변호사 이동원 법률사무소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 화인쿠치네
오무선	OMS뷰티살롱	이동원	현대자동차 앞산지점	이재남	DGB생명
오순덕		이동현	(주)우행주 건축	이재덕	금성기구
오재완	에스엠인터스트리	이두원	(주)DRK	이재덕	한국인의 밤상
오진섭	오진섭세무사사무실	이명옥	(주)이원	이재익	가람테크
오택근	더좋은병원(수성구)	이명현	동광명품도어	이재태	대구경북청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우경호	제일약품(주)	이무철	금융기계(주)	이재표	(주)에이프
우상현	W병원	이문열	대신공영	이재하	삼보모터스
우성진	(주)메가젠임플란트	이민화	(주)백강	이재형	대구발전동우회/ 삼익HPS
우승민	스포츠와	이민희	키친씨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우승수	대구부고	이배	재분화가	이재훈	푸드윈
우영재	(주)한영	이병훈	(주) 대구 스탠레스	이정미	아사무역
우외배	유화 비엔피	이복환	군민신문	이정주	
우종근	영인 E&C	이복희	광덕전력	이정현	현대자동차 대구중앙지점
유다건	경대일어일문학과	이상권	운경재단	이정훈	(주)TPC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이상길	대구시	이종경	도원
유병완	사건작가	이상락	대구시	이종만	미전커피텐
윤경인	(주)글로벌에스피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종복	삼해인터스트리
윤귀자	삼성생명	이상열	(주)씨유컴퍼니	이종운	덕재건설
윤남수	(주)아석전기	이상탁	반도광학(반도옵티컬)	이종원	KOG
윤민환	CMK푸드	이상혁	(주)비토코리아 / 슬립리스인시애틀	이종현	(주)퓨리치
윤소인	한국일보	이상홍	팔공인터내셔널(주)	이주현	엘플러스
윤영만	명성주택	이상효		이주형	(주)엘컴
윤영수	(주)우정건축자재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준근	SSLM주식회사
윤용득	교통시스템 연구소	이선찬	진성테크	이준철	태영전기
윤종현	수성문화원	이성구	마리아나임클리닉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윤주석	주순개발(주)	이성구	이앤김연합내과의원	이중원	경산상공회의소/ 원호금속(주)
윤창권	그린에너지시스템	이성동	금보건설	이중호	(주)세신정밀
윤창섭	GOLDEN-B	이성배	(주)예가	이지언	운경재단
윤태경	바로분병원	이성태	주식회사 풋살스포츠	이지완	명진BS치과
윤형돈	미래에셋대우	이성하	BL 성형외과	이진백	G&B.오토모빌(주)
은영기	한솔개발	이성한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이갑열	(주)상일종합관리-SL산업개발	이숙형	여행의향기	이진수	환경A&C(주)
이강태	한국교통정보	이승민	리얼홀딩스	이진호	
이강하	(주)아스코	이승진	나우산업개발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이경곤	주식회사 유성기초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창근	극동1급정비공장
이경호	(주)한길산업	이시연	DESIGN GROUP KHAN	이창두	(주)알파팩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암우	옛법사랑협동조합	이창영	만촌1동성당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이창환	(주)토담건축	장재태	영남대학교 ROTC 동창회	정태호	대영 코어텍(주)/ 대영(주)대영모터텍(주)폼그리기(주)
이창희	이코노식자재마트	장재화	(주)창녕침우축산	정택수	매일에드
이충경	JUWEL J	장정숙	(주)자원환경	정하용	동신에스피
이지우	대구음악협회	장정호	장정호 법률사무소	정한재	청운신협
이태훈	(주)에드엔피알스미스	장종욱	아곰의집 / 대구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	정현수	(주)보국이앤씨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장종호		정호균	메디피아
이한일	드림원장	장팔술		정홍표	(주)홍성건설
이현	(주)두강 /코디박	장필환	부동산 컨설팅	조규현	대명건축사사무소
이현수	MG새마을금고	장해정	백산부동산	조극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이원득	이원득법률사무실	장홍석	대원테크	조동희	주)제이원/제이원씨티칼(주)
이형선	지성건설(주)	전미조	효성복지재단	조두석	(주)에드메이저
이형원	일성침장	전성렬	동양OA	조득환	(주)금강알텍
이호경	(주)대영에코건설	전수근	삼명종합상사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이호경	월드산업 주식회사	전영제	(주)다원E&C	조민규	프로골프
이화선	(주)화선	전영호	팔공신협	조민성	동영염직(주)
이희도	(주)우성엔에프/아진주철	전용수	(주)신동아관광	조병래	디자인해밀
이희준	SGI 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전재관	전재관한의원	조봉준	동일
이희재	이희재건축사사무소	전중달	제이디 건설(주)	조선웅	유마스텔 메디칼 그룹
인재현		전태제	대구CC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임건주	다운비엔에이	전해영	화인건축사	조성수	에이엘테크
임광호	열린치과	전행노	메가미래라이프	조영래	(주)원형D&C
임명섭	(주)영남바른상조	정경용	민 초심	조영만	(주)제이에이치테크
임병욱	대구은행	정균섭	대영산업	조용호	(주)이퍼시스템
임상백	위드고	정기욱		조장형	(주)나래파움
임상훈	엔티엘의료재단	정기은	분홍빛병원	조정연	(주)대정디앤씨
임상훈		정기출	삼성 대구법인지점	조정욱	두손건축
임영미	DGB 생명	정모경	정원자카텍	조종수	(주)서한 대표/ 대구건설협회
임영태	농협 사월지점	정민교	대영모던텍(주)	조준근	대구시 학원 총연합회
임익기	브라이트	정병창	세종건설	조준호	(주)태인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정병환	대구시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임재형	(주)원규	정성인	경인D&C	조철래	(주)성지여행
임창광	KOG	정성훈	(주)엘피니스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임홍규	(주)대평산업개발	정세욱	동광P.M	조혜림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정소영	창성산업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장기석	주호산업, 아인	정승진	한국OSG	주윤수	토정건설(주) 토정개발(주)
장기식	JCI	정에스터	갤러리 제이원	지성한	오성시스템(주)
장기철	부강철강	정연일	한 패밀리 병원	지용호	(주)대한공조
장길환	세안정기	정영만	제이아그로(주)	진경훈	(주)코앤코
장도미	(주)Queens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진광석	진성축산
장동렬	경산건설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진덕수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장민우	주식회사 대영금속	정찬두	세기리텍(주)	진영환	삼익 THK
장병배	신부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진혜윤	(주)보강디앤에스 / 벅서스투어(주)
장병환	삼보이데아	정용화	빠리바닷가재	차성범	(주)삼인프라이م
장선윤	고문당인쇄(주)	정용화	(주)대서제미칼	차순봉	신우종합건설
장성태	대한개발	정우필	(주)서한	차영규	민영산업
장세주	(주)한국포장산업	정원호	(주)삼화봉재	차인석	대성엔팍스
장세철	고려건설	정일균	(주)다온시스템/ 대구스퀴시 협회	차훈일	(주)샘초롱 농업회사법인
장수미	부부엔젤	정장화	주성안전기	천용구	(주)가우
장안중	석문전기	정재간	대구대학교	천자우	(주)에슬린
장영자	HILIVING	정재석	탐메디케어	천종열	(주)윤성건설
장용호	(주)나라산업	정재철		천종태	소천도예인
장우영	대구보건대학교	정재호	초록들코리아(주)	천향구	연세클리닉
장원규	(주)화성	정정국	(주)지엠이앤씨	천해성	(주)하림조경
장원용	대구시	정정아	국수꽃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장윤제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정찬두	(주)세기리텍	최경수	삼익테크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정태경	(주)대성건설	최고현	대구MBC
장재철	AIG어드바이저	정택일	한국OSG	최규락	동양이엘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최길영	대구교통연수원	하승우	하승우 내과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하윤수	한국공조		
최동욱	(주)한라개발	하정식	서보정밀		
최만수	인터볼고CC	하계연	레인보우 스튜디오		
최명수	(주)오성종합주류	하종범	더 포스코샵		
최명환	정진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하태욱	대구과학대학교		
최미애	(주)뉴니케	하태준	영진종합건설		
최상무	오페라하우스	하호만	농협		
최상태		한금재	케이프린텍		
최석훈	남산병원	한도준	삼익키리우(주)		
최신주	주)연호개발/제이엠지개발	한동엽	방천시장가족족발		
최성문	크레텍 책임	한무경	효림산업(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최성욱	주)책임전력공사	한상섭	대구 경상병원		
최성종	통문어전문점	한성교	(주)한빛 알앤디		
최성주	(주)동진금속	한영필	주)에스피코리아		
최세욱	주)우경정보기술	한화용	금도에너지(주)		
최승규	이에스티산전	함동호	에듀		
최양원	주)이루케미칼	허성규	우진시스템		
최영철	주)삼코	허용훈	주)건화트랜슬로그		
최영호	대구시	허원희	HK GOLF		
최영환	동명테크원(주)	허정수	명진약품		
최영훈	KT텔레캅	허진걸	주)영산전기		
최예영	태양인 이제마 한의원	허태조	사)한국산림보호협회중앙회		
최오원	주)이퀀트카	허필수	동성		
최용석	빠른감자탕	허홍만	명성골프		
최우각	대성하이텍	현대백화점	대구점		
최우영		현대용	한솔식품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준비위원회	현정규	주)영진기공		
최은석	의사회	홍덕률			
최익진	(주)풍국면	홍민수	WOORAM 우람		
최인철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홍석준	대구시		
최인호	(주)명성티앤에스	홍석환	소방감리원 기술단		
최일경	명문텐달	홍영돈	에스와이패널(주)		
최일권	(주)현대중공업	홍영호	바른로지웍스		
최재호	주식회사골든크라운	홍강현	주)뉴영남인테리어		
최종태	(주)솔트커뮤니케이션즈	홍정민	경산버스		
최종택	최종택세무사사무소	홍진수	세인트나인		
최종애	동양종합건설(주)	홍칠자	부부엔젤		
최주희	변호사	홍효정	부부엔젤		
최준혁	한청	황 성	주)진일공업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황세영	매천축산/초일완우		
최진환	(주)고려이앤씨	황 영	주)푸르맘		
최장배	신항도시개발(주)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최철환	광풍 퍼니처	황인혁	인성데이터		
최태인	대구축구협회	황재범	오리여인		
최한교	디스이즈모든	황정철	제주스프링		
최해동	개인사업	황정현	성광전기설계사무소		
최현희	(주)아르데코무이	황종길	성신건설		
최효욱	(주)월성주택	황주연	한솔해피너스대구수성센터		
추재엽	대영에코건설	황현호	인터넷주식회사		
추화엽	대성크린텍	황주연	한솔해피너스대구수성센터		
코바체프	대구시향	황현호	인터넷주식회사		
태영경	물리치료사				
표병관	(주)지에스탑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하석배	계명대학교				

대구FC엔젤클럽은 대구사랑입니다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엔젤클럽은 지난해 1년 앞당겨 구명 회원 목표'를 달성하면서, 대구FC 재정안정과 관중증대에 한 몫 하는 등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용구장 시대를 앞둔 2018년을 맞아, 엔젤클럽은 2018명 회원달성'을 목표로 다시 한 번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제'(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 가입문의

- ▶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 Tel : (053) 602-7307 - Fax : (053) 602-7306
- ▶ 대구FC엔젤클럽홈페이지
- <https://www.dgfcangel1004.co.kr>

◆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든 경우 일시납으로 계좌이체나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 1000만원 이상
- 일반 : 100만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 12만원 이상 / 월 10,000원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엔젤릴레이

- 릴레이방식으로 추천

▶ 홈경기 직접관람 응원

- 대구FC 홈경기시 엔젤존 운영 (E석)

▶ 천사데이 등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권유

◆ 혜택

- ▶ 구단물품증정
- ▶ 행사참여
- ▶ 입장권 증정(후원금 액수만큼)
- ▶ 배너노출



대구FC구단 후원금 CMS 자동납부 신청서



◆ 수납기관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수납기관	기관명	대구FC	수납목적	대구FC 후원금
	대표자명	조광래	사업자등록번호	502-81-67049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대흥동 504번지) 대구스타디움 내 대구FC 사무국		

◆ 자동이체 신청내용 (납부자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연락처		() -
	금액	월납	☐ 월 10,000원(연12,000원) ☐ 월 83,000원(연996,000원) ☐ 월830,000원(연9,960,000원)		납부일 매월 ☐ 5일 ☐ 15일 ☐ 25일 매년 월 일
연납		☐ 년 120,000원 ☐ 년 1,000,000원 ☐ 년10,000,000원			
결제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필수입력)		
	실명번호	생년월일 / 성별	☐ ☐ ☐ ☐ ☐ ☐ - ☐ - - - - -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구FC구단 및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활용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대구FC구단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자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 (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3자 제공 및 월자동납부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1.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필서명후, 신분증은 복사나, 핸드폰으로 촬영후 인쇄본으로 첨부합니다
2.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 여야 합니다.
3. 신청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SC, 기업, 외환, 씨티, 산업, 새마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수협, 신한, 우체국, 동양증권, 삼성증권
4. 신청가능 통신사 : SKT, KT, LGU+, CJ헬로비전

자동이체 후원 방법

▶ 자동이체후원방법

우선 사전적으로 자동이체란, 납부자가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납부해야 하는 통신료, 보험료, 렌탈료 등을 납부자가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하여 요금청구기관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로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수취인, 입금계좌, 금액, 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납부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서비스로 CMS자동이체, 지로자동이체, 펌뱅크 자동이체 등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 자동이체 2가지 방법 : 자동송금/ 자동납부

1. 자동송금

본인이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신청서에 이체금액이 송금될 계좌(대구은행[505-10-166937-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와 주기적으로 후원금이 빠져 나갈 본인의 계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 엔젤 매월 이체금액 : 83,000원 이상 /월 (1년 996,000원 이상)
- ▶ 엔시오 매월 이체금액 : 10,000원 /월 (1년 120,000원)

본인이 이렇게 신청하시면 매월 이체 금액이 자동적으로 구단계좌로 송금 됩니다.

2. 자동 납부 방법

자동송금과 달리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지만, 엔젤앱, 사무국 등을 통해 CMS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①엔젤 앱을 통한 신청 : 엔젤앱의 CMS자동납부신청배너를 클릭, CMS동의서를 작성하고, 앱상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 ②홈페이지 이용 : 엔젤클럽 홈페이지에 자동납부신청서가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사무국으로 팩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③사무국을 통한 신청 : 사무국을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사무국 직원이 개별 방문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사무국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의 경우 손비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경우 입금하시는 첫 달! 부터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합니다. 꼭꼭!

미리 말씀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 다는 점 알아주셔야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입금확인증의 경우 납입하신 개월 수 만큼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대구FC프로시민축구단이 주식회사라 발급이 어려운 점 엔젤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한 달에 한번 대구사랑 축구사랑 실천하는 엔젤분들의 마음 멋지십니다.

▶ 불가피하게 엔젤활동을 잠시 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엔젤 활동을 잠시 쉬고 싶으실 경우 자동송금, 자동납부 모두 본인이 직접 은행을 통해 이체 중지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쉬시다가 다시 돌아오실 거죠?

※작성예시

대구FC구단 후원금 CMS 자동납부 신청서

◆ 수납기관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금융기관 및 결제 대행사 (대구FC구단) 제출용

수납기관	명	대구FC	수납목적	대구FC 후원금
대표자명	조광래	사업자등록번호	502-81-67049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대흥동 504번지)	대구스타디움 내 대구FC 사무국		

◆ 자동이체 신청내용 (납부자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김연철		연락처	(010) 2018 - 1004
	금액	월납	☐ 월 10,000원(연12,000원) ☒ 월 83,000원(연996,000원) ☐ 월 830,000원(연9,960,000원) ☐ 년 120,000원 ☐ 년 1,000,000원 ☐ 년 10,000,000원	납부일	매월 ☐ 5일 ☒ 15일 ☐ 25일 매년 ____ 월 ____ 일
결제정보	은행	엔젤은행		예금주	김연철
	계좌번호	2015 - 2018 - 1004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010 - 2018 - 1004 (*필수입력)			
	실명번호	생년월일 / 성별	920317 - 2 -		
개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501 - 15 - 10042		*법인으로 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활용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구FC구단 및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대구FC구단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사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3자 제공 및 월자동납부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6 월 11 일 신청인 : 김연철				

1.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필서명후, 신분증은 복사나, 핸드폰으로 촬영후 인쇄본으로 첨부합니다
2.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신청가능은행 : 국민, 우라, 신한, 농협, 하나, SC, 기업, 외환, 씨티, 산업, 새마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수협, 신한, 우체국, 동양증권, 삼성증권



Daegu FC Report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2018.08.26 vs 강원 류재문 골!

DAEGU FC 2018 SEASON BRIEFING

9월 3승 1무 1패 대반격

오랜 징크스를 깬 수원과 서울전

완벽한 데뷔전 치른 장성원의 활약

세징야 K리그 도움왕 도전

'달려라 하니' 한희훈 프로 100경기 달성



웬만해선 대구를 막을 수 없다.

후반기 대반격 상위 스플릿으로!

9월에만 3승1무1패 대 반전, 김대원, 정승원 영건들의 무서운 활약

9월 한 달간 대구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9월에 치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렸다. 강호 수원과 서울을 연이어 무너뜨렸고 상주 전에서는 무려 5골을 몰아치며 리그 4연승을 질주했다. 말경이 버티고 있는 경남과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마무리는 아쉬웠다. 9월 마지막 경기인 포항 원정에서 조현우의 선방쇼에도 불구하고 1대2 패배를 기록했다.

대구와 상승세는 득점과 연관된다. 전반기 득점력 빈곤에 시달렸던 대구는 9월에만 14골을 넣으며 무서운 공격력을 과시했다. 에드가는 5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홍정운, 김대원, 세징야 등 여러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며 대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 상승세가 시즌 막판까지 이어진다면 대구FC는 내년에 대구축구전용구장에서 1부 팀들과 개막전을 가질 것이다.

징크스는 깨진다!

완벽한 데뷔전 치른 장성원의 활약

9월 한 달간 대구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다. 9월에 치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리그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렸다. 강호 수원과 서울을 연이어 무너뜨렸고 상주 전에서는 무려 5골을 몰아치며 리그 4연승을 질주했다. 말경이 버티고 있는 경남과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마무리는 아쉬웠다. 9월 마지막 경기인 포항 원정에서 조현우의 선방쇼에도 불구하고 1대2 패배를 기록했다.

대구와 상승세는 득점과 연관된다. 전반기 득점력 빈곤에 시달렸던 대구는 9월에만 14골을 넣으며 무서운 공격력을 과시했다. 에드가는 5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홍정운, 김대원, 세징야 등 여러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며 대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제 대구에게 상위스플릿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6위 강원과 7위 승점 차는 단 2점.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충분히 상위스플릿을 노려 볼 수 있다.

세징야, K리그 도움왕 도전!

9월에만 3개 도움, 이용, 아길라르, 네게바와 접전

올 시즌 세징야가 도움왕에 도전한다. 세징야는 9월에만 3개의 도움을 추가했다. 수원전에서는 2골1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쳤고, 상주전에서는 1골 2도움으로 팀의 대승을 이끌었다. 세징야는 총 9개의 도움으로 리그 1위에 올라있다. 현재 이용(8도움), 아길라르(8도움), 네게바(7도움)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중이다.

세징야는 2016년 자신이 기록한 8개의 도움을 이미 넘어섰고 구단 역사상 최다 도움 기록도 경신 할 것으로 보인다. 구단 최다 기록은 2015년 문기한이 기록한 10개의 도움. 당시 문기한은 38경기에 나와 1골10도움으로 K리그 챌린지 도움순위에서 2위에 오른바 있다.

세징야에게는 스플릿 포함 7경기가 남아있다. 구단 역대 최다도움 기록 경신 가능성은 충분하다. 올 시즌 세징야가 리그 도움왕에 오른다면 2004년 홍순학(6도움)에 이어 14년만이다.



달려라, 하니 캡틴 한희훈 프로 100경기 달성!

9월26일 경남전 프로통산 100경기 출전

강한 파이팅으로 때로는 멋진 수비로 대구를 이끌고 있는 주장 한희훈이 지난9월26일 30라운드 경남전에서 프로통산 100경기 출전을 달성했다. 2013년 일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한희훈은 에히메FC, 도치기SC를 거쳐 2016년 부천FC1995에 입단했다. 한희훈은 부천FC 입단 첫 해 부터 주전으로 발돋움하며 40경기에 출전하였고 그해 말 대구로 이적하게 됐다.

한희훈은 지난해 시즌 중반부터 주장 자리를 맡게 됐다. 안정된 수비로 팀을 이끈 한희훈은 대구를 8위에 올려놨다. 한희훈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주장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K리그에서 3시즌 만에 100경기를 달성했다.

8월과 9월 대구는 무려 7승을 올리며 어느덧 상위 스플릿을 진출을 꿈꾸고 있다. 또한 목포시청과의 FA컵 8강 경기도 예정 돼 있다. '상위스플릿'과 'FA컵'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대구FC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정 당당! 세금 골든벨을 올려라!” 대구FC, 대구지방국세청과 올해 6회째 개최

임재혁, 예병원, 고재현 성당초 방문, 대구지방국세청과 세금골든벨 진행
조현우 문제 출제자로 영상에 등장, 성당초 학생들과 호흡 맞춰

시민구단 대구FC가 올해로 6회째 대구국세청과 ‘세금골든벨’ 행사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구FC와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대구 성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대구지방국세청과 함께 ‘도전! 세금 골든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성당초에서 진행된 세금 골든벨은 대구FC가 대구지방국세청과 함께 준비한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 오성중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 매천중학교, 지난해에는 신흥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등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를 위해 임재혁, 예병원, 고재현 선수가 성당초를 찾았다.

프로그램은 3교시와 4교시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3교시에는 세 선수가 3교시에 3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패스, 드리블, 슈팅 등 기본기 교육을 했다. 이어 4교시에는 3학년 17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 골든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세금 또는 대구FC와 관련된 문제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풀었고, 국세청과 대구는 1등(5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학용품), 2등(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학용품), 3등 상품과 사인볼, 어린이 티셔츠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날 특별한 출제자도 있었다. 대구FC 주전 골키퍼 조현우가 문제 출제를 위해 영상에 등장한 것이다. 학생들은 조현우 선수가 영상에 나타나자 크게 환호했다.

승자는 패자부활전을 포함해 20여 문제를 푼 끝에 정해졌다. 1등은 3학년 5반 박현정 학생이었다. 1등을 차지한 박현정 학생은 “1등을 할 줄은 몰랐는데 얼떨떨하다. 먼저 탈락한 친구들이 응원해줘서 미안하고 또 고맙다. 이번에 퀴즈를 풀면서 대구FC와 세금을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침산초에서는 조철호 대구FC U-12 (신흥초) 코치가 6학년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했다. 강연은 축구 관련 직업은 어떤 게 있는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지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대구FC, 10년만에 FA컵 4강 진출!

2008년 이후 최고 성적 달성, 4강 넘어 결승진출도 노려

전현철, 김대원 득점, 조현우 선방에 힘입어 목포에 2대1 승리

대구FC가 10년 만에 FA컵 4강 진출에 성공했다. 대구는 10월3일(수) 오후 2시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목포시청과의 2018 KEB 하나은행 FA컵 8강전 경기에서 전현철, 김대원의 골과 조현우의 선방에 힘입어 2대1 승리를 거뒀다.

이날 대구는 일부 주전 선수를 제외하고 목포 원정에 나섰다. 세징야, 정우재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한희훈, 정승원 등은 대구에서 휴식했다. 그 자리는 전현철, 김우석, 장성원 등이 채웠다.

3-4-3 포메이션에서 전현철이 에드가와 함께 투톱으로 나서 목포의 골문을 노렸다. 김대원이 2선에서 이들을 지원사격 했고, 이번 경기 친정팀을 상대하게 된 강윤구가 왼쪽, 장성원이 오른쪽 측면을 맡았다. 황순민, 류재문이 가운데에서 경기를

조율했다. 박병현, 홍정운, 김우석이 쓰리백, 조현우가 골키퍼로 나서 골문을 지켰다.

전반 초반에는 기세를 올린 홈팀 목포가 몇 차례 슈팅을 시도했지만, 모두 골문을 벗어났다. 처음 나선 목포 원정에 적응을 마친 대구는 전반 중반부터 발이 빠른 김대원, 전현철과 제공권이 좋은 에드가를 활용해 목포 골문을 노리기 시작했다.

대구의 선제골은 오랜만에 출전 기회를 잡은 전현철의 발끝에서 나왔다. 전반 22분 목포의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에드가가 머리로 떨어뜨렸고, 목포 수비가 걷어내지 못하자 페널티 박스 안에서 기회를 노리던 전현철이 침착하게 골문으로 밀어 넣었다.

한골을 내준 목포도 물러서지 않고 날카로운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목포의 공격을 잘 막아낸 대구는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추가골 기회를 노렸다.

전반 44분 목포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아크써클 정면에서 슈팅 기회를 잡은 목포의 심영성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목포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대구가 1대0으로 앞선 채 전반을 마쳤다.

대구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세징야, 정우재를 투입하며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후반 2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장성원의 크로스가 헤딩 경합을 거쳐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흘렀다. 에드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논스톱 발리슈팅을 시도했지만, 목포의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대구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후반 10분 슈팅 기회를 잡은 목포가 잇달아 슈팅을 시도했다. 두 차례 조현우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기는 듯 했으나, 다시 한 번 달려든 목포 선수를 잡지 못하고 결국 골문을 내줬다.

대구 다시 리드를 잡기 위해 세징야를 앞세워 공격에 나섰다. 후반 19분 역습상황에서 세징야에게 공이 연결됐다. 세징야, 김대원, 에드가, 장성원 등을 거쳐 류재문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골문 위로 벗어났다.

대구의 공격 작업이 빛을 발했다. 후반 27분 황순민이 목포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던 김대원을 보고 패스를 연결했고, 김대원이 골문 반대쪽을 보고 침착하게 공을 밀어 넣었다.

후반 29분 목포의 공격에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조현우와 수비진이 몸을 던져 막아냈다. 전열을 가다듬은 대구는 한골 더 달아나기 위해 공격에 나섰다. 아크써클 정면에서 세징야가 내준 공을 황순민이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정면을 향했다.

목포의 슈팅이 골대를 맞는 등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잘 막아낸 대구는 세징야를 앞세운 역습으로 기회를 노렸다. 추가시간이 4분까지 스코어를 유지한 대구는 결국 경기를 2대1 승리로 끝마쳤다.

대구 유독 FA컵과 인연이 없었다. 최근 2년간 32강에서 고배를 마셨고, 지난 2008년 4강에 진출한 것이 FA컵 최고 성적이다. 당시 '태양의 아들' 이근호를 앞세운 대구는 8강에서 울산을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제주에서 열린 당시 FA컵 4강에서 대구는 포항을 만나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PK 골을 허용하며 0 대 1로 아쉽게 패하며 결승진출이 좌절됐다.

포항은 결승에서 경남FC를 물리치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이를 발판으로 출전한 이듬해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까지 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구FC 역시 10년 만에 진출한 4강인 만큼 남다른 각오다. 특히, 예선에서 32강, 16강에서 용인대, 양평FC를 만나 대승을 거뒀고, 8강에서 FA컵 돌풍의 팀 목포시청을 잠재웠다. 10년 만에 4강 진출에 성공하며 기회를 잡은 대구는 4강 진출, 결승 진출, 나아가 창단 첫 FA컵 트로피를 노리고 있다.





‘달려라 하니’ 주장 한희훈이 뛰어온 100경기

월드컵 휴식기가 끝나고 전반기 1승에 그친 대구FC는 전혀 다른 팀으로 변해있었다. 외국인 선수들 뿐 아니라 어린선수들까지 골고루 활약을 펼치며 9월까지 17경기에서 9승을 거뒀다. FA컵 또한 8강전에서 만난 목포시청을 제압하고 4강에 진출한 상태. 이 모든 대구의 상승세의 중심에는 한희훈이 있었다.

한희훈은 대구FC의 주장이다. 지난 시즌 중반부터 팀을 2년째 이끌고 있다. 부담감과 책임감이 많이 따르는 자리지만 어린선수가 비교적 많은 대구에게 한희훈은 꼭 필요한 존재다.

이런 한희훈에게도 어느덧 100경기가 찾아왔다. 지난 26일 경남과의 경기에서 100번째 경기를 맞이한 한희훈은 이날도 역시 주장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했다. 파이팅 넘치는 투혼과 때로는 동네 형 같은 친근한 모습을 보여줬던 한희훈. J리그2부터 K리그1 주장의 자리까지 그의 축구 인생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

축구가 좋았던 한희훈, 처음 찾아온 부상의 시련

한희훈이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단순히 축구가 좋아서 시작했다.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동아리 축구부에 들어가며 축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셔서 장래에 태권도에 관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축구가 더 좋았기에 축구를 택하게 됐죠. 중학교 때 정식 축구부에 입단 테스트를 보고 들어갔고 아버지도 경기에 땀 수 있으면 축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어요.”

훗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꾸준히 경기에 출전한 한희훈은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축구를 계속하게 되며 상지대에 입학하게 됐다. 상지대에 입학한 한희훈은 수비수지만 골키퍼로서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특별한 경험도 있다. “상지대에서 우수상을 받았을 때는 골키퍼로 받았어요. 팀 골키퍼가 부상을 당해서 제가 대신 나갔죠.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지난 울산전에서 (조)현우가 퇴장당하고 (류)재문이 대신 제가 골키퍼 장갑을 껴면 더 잘 막지 않았을까요?”(웃음)

선수생활 내내 순탄한 길을 걸어온 한희훈은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당시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 겪는 부상이라 한희훈은 더 힘들게 느껴졌다고 한다. “저는 부상을 대학교1학년 때까지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 처음 큰 부상을 당했죠. 당시 많이 힘들었어요. 부상의 여파로 K리그 드래프트에도 선택되지 못해 일본팀을 찾게 됐죠.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을 찾고 싶었어요.”





바다를 건너 내가 뛸 수 있는 팀으로

K리그에 지명 받지 못한 한희훈은 자신이 뛸 수 있는 팀을 찾아 일본으로 떠났다. 한희훈은 에히메FC와 도치기 SC에서 약 3년간 뛰며 일본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했다. “제가 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축구를 해야 했어요. 에히메FC에 입단테스트를 보고 입단하게 됐죠. 제가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통역도 없고 힘들었지만 저의 성격으로 버텨낸 것 같았어요. 일본 생활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서 인생에서 보람찼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일본에서 뛰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돌아온 한국, K리그의 첫 발을 내딛다.

3년간의 일본생활을 끝내고 한희훈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일본에서의 활약을 알아준 팀은 부천FC1995. 특히 당시 부천FC의 사령탑이었던 송선호 감독의 러브콜이 한희훈의 마음을 움직였다. “J리그1로 올라가서 뛰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부천FC1995에 계시던 당시 송선호 감독님이 저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저도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K리그로 돌아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부천의 유니폼을 입은 한희훈은 4월3일 충주함멜과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첫 경기가 충주와의 원정경기였는데 1-0으로 이겼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경기를 뛰거나 긴장하면 다리에 근육경련이 올라오거든요. 그날 근육경련만 올라오지 말자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었어요. 또 감독님이 제가 잘하도록 항상 신뢰를 주셔서 저만의 플레이가 나온 것 같아요.”

대구FC로의 이적 캡틴 한희훈

부천에서 40경기를 소화한 한희훈은 한 시즌 만에 대구로 이적한다. 당시 대구는 챌린지에서 클래식으로 막 올라왔던 팀이었다. “조광래 사장님이 저를 더 성장 시켜주실 거라 생각했고, 대구FC에서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느꼈기에 대구이적을 택하게 됐습니다.”

대구로 이적한 한희훈은 시즌 첫 경기부터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며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장완장을 차며 팀을 이끌게 된다. “(박)태홍이가 부상으로 나가면서 제일 고참 이었던 제가 주장을 하게 됐어요. 원래 (조)현우가 부 주장이었기 때문에 완장을 차고 나갔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필드 플레이어가 주장을 맡고 선수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권유하여 제가 이어받게 됐죠. 지난해 주장을 맡고 팀 성적도 좋았기에 올해도 저에게 맡겨 주신 것 같아요.”

2017시즌 대구는 8위라는 좋은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하며 2018시즌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올 시즌 전반기의 대구는 그야말로 암흑이었다. 계속되는 퇴장과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으로 대구는 7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다. 대구가 전반기에 기록한 승수는 단 1승. 팀이 침체되며 주장 한희훈의 마음도 무거워져만 갔다. “부담보다도 걱정이 컸어요. 강등되면 개인적으로

팀으로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강등은 절대 당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정이 없고 책임감이 없으면 화도 안나요. 하지만 저는 대구FC가 저의 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었어요. 경기력과 성적 좋지 않고 외국인 선수도 없고, 시즌 초에 너무나 힘들었죠. 앞이 안보였어요.”

그러던 한희훈이 확성기를 들었다. “팬 분들이 답답해하시면서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주장을 하면서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팬 분들과도 식사 시간도 많이 가지려고 해요. SNS에 장문의 답문을 올리고 수원과의 경기 후에 확성기를 들게 됐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졌고 우시는 팬 분들도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믿어달라는 말뿐이었어요. 월드컵 휴식기에 준비를 잘해서 다른 팀으로 변해서 오겠다고 약속드렸죠.”

한희훈의 약속과 팬들의 바람이 간절했던 걸까? 대구는 월드컵 휴식기가 끝나고 전혀 다른 팀이 됐다. 득점이 많아지고 이기는 경기를 했다. 점점 선수들은 자신감을 찾았다. “전지훈련 때는 다른 팀이 60%~70% 훈련할 때 저희는 100%로 훈련했어요. 백사장도 뛰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발 더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린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자나요. 전지훈련 끝나고 나서도 저희는 더 많이 운동을 해요. 경기를 이기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을 수 있던 것 같아요.”



Half time talk

우리에겐 아직 후반전이 남았다



대한민국 문화브랜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 대구의 가을은 오페라의 계절,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발돋움
-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한국오페라사를 반영, 미래를 설계한 프로그래밍
- 대구 문화계의 엔젤,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브랜드로 부각

대구지역 스포츠계가 엔젤 전과 후로 구분 되듯이, 대구의 공연예술은 2003년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 전과 후로 구분된다. 대구오페라하우스라는 공간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오페라축제 역시 극장을 기반으로 출발하여 올해 16회째를 맞으며 지역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달 앞당긴 축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돋움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작년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9월에 시작됐다. 축제의 출발을 한 달 여 앞당긴 것은 해외극장의 비시즌 기간인 9월에 축제를 시작함으로써 해외에서 활동 중인 훌륭한 아티스트들을 초청하는데 유리하며, 따라서 축제의 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축제 가운데 두고, 대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축제를 소개하며, 오페라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휴가기간 등을 활용하여 해외 관객이 오페라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해, 오페라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배선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는 “유럽의 대표적인 오페라축제들과 마찬가지로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며,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며, “동시에 대구만의 브랜드 상품으로 반드시 창작오페라가 활성화돼야한다”고 말했다.

해외 오페라극장, 국내외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과의 네트워킹으로 세계화

대구오페라하우스 최상무 예술감독은 대구국제오페라축제와 대구오페라하우스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바로 네트워킹이라고 강조한다.

최상무 예술감독은 취임 후 해외 오페라극장들과의 네트워킹, 국내외 예술단체, 예술인들과의 연대에 집중하고, 이를 위하여 유럽과 아시아 단체들과 교류협력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최상무 예술감독은 축제를 통한 네트워킹을 설명하면서 오페라 콘체르탄테 〈살로메〉를 예로 들었다. 오페라 콘체르탄테 〈살로메〉는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독일 베를린 도이체오페라극장의 합작무대이다.

베를린 도이체오페라극장은 작년에도 축제를 통해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선보여 클래식 애호가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을 함께하는 오스트리아 뫼르비슈 오페레타 페스티벌과 함께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 한국오페라사를 반영, 미래를 설계한 프로그래밍

올해는 대한민국 오페라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번 축제의 주제로 지난해와 같은 ‘OPERA and HUMAN’을 앞세우고, 여기에 ‘영원한 오페라, 꿈꾸는 사람’이라는 부제를 더해 7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오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메인오페라는 한국 오페라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의 역사상 우연하지만 의미 있는 접점을 갖고 있다.

한국 최초의 창작오페라 <춘향전>을 작곡한 지역 출신 작곡가 현제명의 탄생연도가 1903년이고, 100년 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개관하였으며, 베르디와 바그너가 1813년에 탄생하였는데, 그 200년 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최상무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은 축제의 구성에 있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세계 오페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① 개막작 <돈 카를로>

개막작 <돈 카를로>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성기를 이룬 베르디의 중기 최고 걸작이자 심리극이다. 16세기, 무적함대를 이끌고 스페인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필리포2세와 그의 아들 돈 카를로 등 실존인물의 삶과 사랑, 죽음에 대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이 작품을 위해 90명의 오케스트라, 60명의 합창단을 투입해 오페라애호가들에게 대작오페라의 감동을 제대로 선사했다. 지휘는 펠릭스 크리거, 연출은 이회수 씨가 맡았다. 주역인 필리포2세 역은 베이스 연광철, 그의 아들인 돈 카를로 역에 테너 권재희, 엘리자베타 역에 소프라노 서선영, 로드리고 역에 바리톤 이웅광, 에볼리 역에 메조소프라노 실비아 멜트라미 등 현재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성악가들이 대거 포진됐다.

② 두 번째 오페라 <윤심덕, 사의 찬미>

두 번째 오페라 <윤심덕, 사의 찬미>는 창작오페라로서 영남오페라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합작으로 공연했다. 작곡자는 진영민 경북대 교수이며, 연출자는 극단 한울림의 정철원 대표. 서른이라는 나이에 연인 김우진과 함께 바다에 투신해 생을 마감한 한국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의 짧은 삶과 일제강점기 억압된 사회에서 나라와 예술에 헌신한 홍난파, 홍해성, 채동선 등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대표곡 ‘사의 찬미’를 바탕으로 펼쳐졌다. 작품 중에 독립운동자금 모금을 위한 대구 순회공연 장면 등 근대 대구의 모습을 담아내는 점도 화제가 됐다. 이 작품은 2018년 대구문화재단 집중기획지원작이기도 하다.



③ 세 번째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

세 번째 오페라 <유쾌한 미망인>은 빈 오페레타의 결정판으로, 작곡가 레하르를 백만장자로 만든 작품이다. 오페레타는 오페라와 비슷하지만 낭만적이고 재미있는 줄거리, 대사가 많고 화려한 춤이 등장하여 오락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20세기 초반 오페레타는 미국으로 건너가 초창기 뮤지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하르의 <유쾌한 미망인> 역시 프랑스 안의 가상국가인 폰테베드로를 배경으로 옛 연인 다닐로 그리고 부유한 미망인 한나와 그녀에게 청혼하는 남자들 사이의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주요 내용이다.

④ 마지막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마지막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70년 전 대한민국 오페라의 시작을 알린 작품이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무대에 오르는 베르디 최고의 인기작이다.

<라 트라비아타>는 향락과 유흥에 젖어 살던 사교계의 꽃 비올레타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정한 사랑과 연인을 위한 자기희생을 담고 있는 비극이지만, ‘축배의 노래’, ‘언제나 자유롭게’ 등 유명 아리아들을 감상할 수 있어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소개된 각 오페라의 오케스트라는 디오오케스트라가, 합창은 메트로폴리탄오페라콰이어가 맡았으며 이 두 단체는 대구오페라하우스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오페라, 함께하는 축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에서, 누구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먼저, 개막을 앞둔 8월과 9월, 대시민 홍보를 위한 부대행사로, 지역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창단들과 함께 대구 시민의 생활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프레콘서트>와 단체나 모임을 직접 찾아가 오페라 감상법, 공연에 얹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강의하는 프로그램<찾아가는 오페라 산책>을 진행했다.

또한,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야외광장과,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펼쳐진 <광장오페라>와 메인오페라를 감상하기 전에 관련 작품에 대해서 전문가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무료 강연 프로그램 <오페라 오디세이>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브랜드가 됐다. 대구 문화계의 ‘엔젤’이다. 대구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선정된 이유의 중심에 있으며, 내일의 대구를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귀한 자원이다. 대구에 ‘오페라의 도시’라는 빛나는 수식어를 안겨준 대구국제오페라축제. 17회 18회... 100회로 이어지며 대구문화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을 기대한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 최상무

예술과 스포츠는 닮았어요

대구오페라하우스 최상무 예술감독은 “사람과 사람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술과 스포츠는 닮았다”고 말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도, 대구FC엔젤클럽도, 대구의 자부심이며, 대구의 정신인 것도 닮은 점이라 했다.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즐겨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엔젤인 이유다.

제 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 9월에 만난 그는 바쁜 일정 가운데도 진심을 다해 오페라와 축구와 대구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는 대한민국 유일의 제작극장(프로듀싱 시어트)이 대구에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인 결과라고 했다.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음악가, 미술가, 문학가들이 대구를 터전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갔다. 근대음악의 발상지이며 그 뿌리를 지키고 이어온 대구는 지금 대구오페라하우스와 같은 세계적인 시설 외에도 일반 시민들의 가곡교실, 합창단 등이 서울보다 많다.

뿌리 깊은 대구의 예술적 기반은 관객의 수준에서도 드러난다고 한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연이은 매진사례도 그렇지만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관객들의 연령층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대구에서 공연한 많은 외국인 연출가와 지휘자들은 대구의 관객들이 박수치는 순간, 환호할 때와 격려할 순간을 구분할 만큼 오페라의 이해도가 높으며 극찬한다.

최상무 예술감독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이 기름진 오페라의 땅에 세계화의 꽃을 피우는 것이 지금 우리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가 세계와의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유럽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극장의 장들을 직접 찾아가 대구라는 도시와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알리는데 열정을 다하는 이유다.

덕분에 이제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 해외작품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해외작품 오디션을 봐야 했으나, 이제는 중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우리 극장에 서고 싶다면 오디션을 보러 찾아온다. 16년 동안 축제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이 본국에 돌아가 대구오페라하우스의 제작능력을 극찬하고 홍보해, 내년 해외 작품선정이 이미 끝날 만큼 풍성해졌다.



매년 우리 성악가들을 독일 등 유럽극장으로 보내는 일도 열심이다. 젊은 성악가들을 유럽으로 보내서 그들이 더 큰 무대, 더 많은 무대를 경험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바로 우리 오페라무대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 성악가가 없으면 독일 극장 오페라무대가 안될 만큼 이제 우리 성악가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졌으며, 전 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최 감독은 이들이 바로 대구가, 대한민국이 ‘아시아 오페라의 허브’가 되는 주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상무 감독은 임기제 예술감독으로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임기가 끝나고 누가 예술감독이 되더라도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가면 대구는 꼭 가봐야 하는 오페라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다.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우리가 독일에서, 이탈리아에서 음악관광을 하듯, 그렇게 오페라와 함께 대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말이다.

하여, 축제를 조금씩 앞당겨 바캉스 시즌까지 당길 계획이다. 오페라와 함께하는 대구의 여름축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것이며, 오페라가 얼마나 재밌는지, 대구의 오페라축제가 얼마나 멋진 휴가가 되는 지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또한 클래식 예술 오페라가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내년부터는 야외오페라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 연말 대구FC전용축구장이 완공되면 대구스타디움을 대구모 예술문화공연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시와 협의 중이다. 내년 7월쯤에는 5일간 10만명의 관객을 초대하는 대형 야외오페라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페라하우스와 가까이 있는 전용축구장에서도 다양한 야외오페라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FC 구단과 협의할 계획이다. 최 감독은 “축구장에서 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등 스포츠와 함께하는 오페라무대는 역동적인 대구를 알리고 대구의 정신, 대구의 에너지를 강화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지막으로, 엔젤로서 최 감독은 “초중고 축구클럽이나 시민들의 축구모임 등과 대구FC 선수들이 잠깐이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대구FC선수들이 시민과 더 많이 스킨십을 하고 대구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엔젤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뛰는 시간이야말로 대구시민을 축구장으로 불러들이고 함께 합성을 지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최상무 예술감독은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교육학 석사를 마친 뒤 이탈리아 로렌초 페로시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 로마 ARENA, AIART, ARAM, AIDM 국제아카데미에서 전문성악, 합창지휘, 오페라 연기과를 졸업했다.





축구의 나라, 아르헨티나를 가다

엔젤이 된 후 어디를 가던 축구장부터 달려가

◆ 축구와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Argentina)는 남쪽 파타고니아 지방의 빙하에서부터 세계최대의 이구아스 폭포, 서쪽 국경의 안데스산맥과 북부의 고원지대 등 남한의 28배에 달하는 거대한 나라다. 세계 4위의 와인 생산국이자 축산업이 국가의 주요산업인 나라답게 양질의 와인과 스테이크를 탱고쇼와 함께 즐기며,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는 인구 1,300만의 아르헨티나 수도로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좋은 공기라는 뜻이지만 지금은 정열과 낭만이 가득한 도시로 먼저 떠오른다.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들과 유적, 그리고 뱃길하던 사람들이 간직한 애절한 마음이 담긴 본고장의 탱고는 남미 여행의 꽃이라 하여 여행자들을 흠뻑 취하게 하기도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보카(Boca)지구는 세계인을 사로잡는 탱고의 본고장이자 마라도나가 뛰었던 전설의 홈구장 보카주니어스경기장(Boca Juniors La Bombonera)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사실 축구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대구FC 창단시부터 원년 후원 멤버가 되었고, 최근에는 자발적 시민후원 모임인 대구FC엔젤클럽에 참여하게 되어 이제는 어느 도시를 가도 명문구장을 먼저 찾아보게 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입성하기 전부터 탱고 리듬에 젖은 낭만 가득한 뜨거운 거리를 기대하면서도, 대구FC엔젤회원으로서 보카주니어스 경기장에 단숨에 달려가고 싶었다. 아르헨티나와 탱고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역사의 끈이라면 축구 역시 국민들의 산소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그 가운데는 바로 아르헨티나 최고의 축구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있고,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 강렬한 원색의 집들이 매력적인 카미니토 거리

카미니토(Caminito) 거리에 들어서니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갖가지 색깔의 집과 탱고의 발상지라는 자긍심으로 가득한 곳이다. 19세기 당시 유럽에서 부푼 꿈을 안고 찾아 온 이민자들이 처음 배에서 내려 낯선 첫발을 디딘 땅이기도 하다.

보카 항구의 원색 건물들은 과거 조선소에서 선박에 칠하고 남은 페인트로 칠해진 것이다. 알록달록한 물감의 페인트로 여기저기를 칠하여 마치 동화책의 한 페이지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 곳 부두의 노동자들과 매춘부들은 힘든 삶을 술과 춤으로 이겨냈다고 한다. 그때 생겨난 춤이 탱고이며, 지금은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 술, 그림을 팔고 있다.

카미니토 거리 2층에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3개의 밀랍 인형이 보인다. 왼쪽에는 탱고가수 “가르덴” 가운데는 대통령 부인 “에바페론”마지막 오른쪽은 보카주니어스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선수 “마라도나”이다.

이집 저집 여기저기에 붉은 드레스에 하얀 머플러로 목을 감은 여인과 한껏 춤을 추는 중년남자가 음악에 맞추어 아주 격정적이고 활기차게 매끄러운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고 있다. 이 곳을 여행해 본 사람이라면 거리에서 탱고 춤을 추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곧 한잔의 와인에 젖은 나에게도 호기심과 열정이 밀려 왔다. 누군가와 서투른 스텝을 밟아가고 있었다. 아마 오늘 이 시각에도 카미니토의 울긋불긋한 원색 거리에서 여행자들은 설렘을 안고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음악에 맞추어 서투른 탱고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 마라도나가 뛰었던 전설의 보카주니어스 홈구장

카미니토 거리에서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보카주니어스 경기장이 있다. 골목사이를 지나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거대한 노란 건물이 보인다. 바로 그 유명한 아르헨티나 프로축구리그 사상 전무후무한 23번의 우승을 이룬 명문 축구팀 보카주니어스의 홈구장이다. 보카주니어스 클럽은 1905년 이 곳 라보카 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되었다. 보카주니어스란 “라 보카 동네의 아이들”이란 의미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가장 서민적인 지역 즉 서민층을 대표하는 축구 클럽이다.

이 구단은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카를로스 테베즈 등 아르헨티나 출신의 무수히 많은 스타 선수를 배출했지만,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바로 디에고 마라도나일 것이다.

정문 앞 건너편에는 보카주니어스 팀의 유명선수들의 밀랍인형을 세워놓아 관람객과 여행자들의 포토존이 되었다. 나는 보카주니어스 소속의 전설적 축구 선수 마라도나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경기장은 마라도나가 축구를 한 곳으로도 유명하여 마라도나를 비롯한 몇 개의 전시관이 있는데 입장료가 400페소(28,000원)정도가 된다. 들어가는 입구 벽에는 선수들의 얼굴이 동판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바닥에는 축구스타들의 발자국으로 꺾꺾 발 도장을 찍어두었고, 그 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보카주니어스 전용축구경기장은 약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내부 또한 노랑과 파랑의 보카주니어스 고유 색깔로 물들어 있다. 단 6개월을 뛰었음에도 마라도나가 자신의 마음의 고향이라 일컬었던 축구팀 보카주니어스의 연고지이기도 한 이곳은 축구가 없는 날에도 찾는 여행자들이 많다.

오래되고 다소 낡은 경기장이지만 그만큼이나 진한 축구의 맛과 여운의 경기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경기 일정이 맞지 않아서 탐나는 텅 빈 파란 잔디구장을 보면서 마라도나를 아직도 열광적으로 사랑하는, 마라도나가 잠시 머물렀지만 영원히 보카맨으로 남게 된 그 곳 보카를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그것도 내게는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마라도나는 이 곳 보카주니어스에서 활약한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1981년 보카주니어스에서 활약을 했지만 1982년 스페인의 FC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하였고, 실제 그가 했던 화려한 플레이의 대부분을 FC바르셀로나 시절에 뛰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도나는 여전히 자신을 보카주니어스에 있었던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것과 이곳 보카 역시 그를 영원한 보카주니어스의 영웅으로 생각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나 같은 축구 문외한도 보카주니어스에서 마라도나의 흔적을 찾고자 했으니까. 곳곳에는 여전히 그를 기리는 추억들로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마라도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 대구FC선수들과 대구FC 엔젤클럽회원들도 기억했으면 했다.



◆ 세계인을 사로잡은 축구의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한 구단 대구FC축구전용구장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자원이 되기를 기대

보카주니어스 구단은 축구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많은 금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경기가 없는 날도 유료 입장객이 줄을 서서 들어와 축구 구단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우승컵을 들고 사진도 찍어보는 이벤트를 하는데 전 세계 많은 여행자들과 축구팬들이 찾아오고 있다. 보카주니어스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티셔츠와 점퍼, 양말 그리고 축구 관련 상품은 시중가의 배가 넘는 가격에도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것은 펠레와 함께 축구의 대명사로 불리는 마라도나가 바로 매출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계절과 경기에 상관없이 많은 여행자들과 축구팬들이 찾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는 문화유산만이 관광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아울러 대구에 완공될 대구FC 축구전용구장도 대구인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자원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법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활용한 위험관리

CEO가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는다고 가정해보자.

유가족의 슬픔은 물론 회사의 존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실은 더 냉혹하다. 법인의 모든 것을 책임지던 CEO가 사망한 뒤에는

법인과 유가족에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남겨진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FP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필자는 다양한 고객을 만나왔다.

최근에는 한 법인의 CEO고객을 만났다. 그는 담당 FP를 통해 컨설팅을 받았으며 필자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법인 종신보험에 가입해 대표자 사망 후에도 법인의 유동성 관리, 유가족의 상속세 납부재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 정말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아래 A 고객(법인 CEO)의 예에서 살펴보겠다. 제조법인을 운영하는 A 고객은 회사를 혼자 경영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전업주부)와 미성년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3년 전부터 사업이 번창하면서 매출은 150억 원 이상으로, 순이익은 20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3년 전 필자는 A 고객과 상담을 통해 법인 주식 가치가 급증(당시 평가액 약 60억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A 고객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가 별도로 이뤄지는지도 몰랐다. 게다가 회사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본인 자산은 10억 원도 되지 않았다. A 고객은 전형적인 '부자 회사의 가난한 사장님'이었다.

◆ A 고객의 자산분석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본금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주식 가치 평가액	60억원	72억원	102억원	150억원
CEO지분(100%)	60억원	72억원	102억원	150억원
예상 상속세	14억원	17억 5000만원	30억원	51억원

(배우자 공제 적용, 자녀 3명, 개인자산 10억원)



당시 필자는 위의 표를 A 고객에게 보여주면서 말했다. "혹시 대표님이 없으면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는 대출을 상환하라 할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상속세를 납부하라고 할 텐데요. 과연 이런 자금여력이 법인과 상속인들에게 있을까요? 대표님이 계신다면 회사의 대표님 개인 자산은 번창하겠지만, 만일을 위해 대표님이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CEO,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어떨까요?"

고민 끝에 A 고객은 3년 전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법인종신보험 30억 원(주계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 고객은 지난해 사망했다. 법인 CEO인 A 고객의 유고로 인해 유가족은 국세청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고민했다. CEO의 법인 자산은 수백억 원으로 급증했지만, 개인 자산은 10억 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상 상속세만 50억 원 정도 되었다.

다행히 3년 전 가입한 법인종신보험을 통해 보험금 30억 원이 법인에 지급되었다. 하지만 해당 보험금은 법인 자금이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당사자는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고민했다. 유가족이 법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상감자나 자기주식 매입이 있다.

유상감자는 회사가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회사에서 자본금 감소로 발생한 환급이나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함을 말한다. 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자본금 규모를 적정화해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유상감자는 당초 납입한 자본금 대비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여러 세무 문제가 발생하는데, A 고객의 예를 보자.

A 고객의 유고 시 법인 주식 가치 평가액이 150억 원, 자본금은 1억 원이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 A 고객의 지분은 100%였다.

이럴 때 30% 유상감자를 실시하면, 감자 대가로 법인으로부터 평가액 150%억 원의 30%인 45억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상감자를 한 만큼 보유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권을 방어해야 할 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대출이 과다한 경우 자본금이 줄면서 부채 비용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은행권이나 기타 기관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자기주식 매입이다. 자기주식 매입(자사주 취득)이란 말 그대로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상감자외의 다른 점은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A 고객의 예를 적용한다면, 법인은 유족에게 30%라는 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입 대금으로 45억 원을 지급하고, 유족은 양도에 대한 대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취득가액(상속받은 금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없고, 증권거래세 0.5%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법인은 30%라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유의할 점이 있다. 반드시 상법에서 정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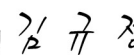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당 주주에게 자금을



부당하게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 사지급금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결국 위의 두 예는 법인 CEO의 갑작스런 유고 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 것이다. 하지만 법인에 45억 원에 해당하는 유동 자금이 없다면 위 2가지 방법을 실행함은 불가능할 것이다. 다행히 A 고객은 법인에서 가입한 종신보험을 통해 3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법인 일부 보유 자금을 활용해,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다.

법인 CEO와 상담하다 보면, 무조건 종신보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내 가족과 회사를 지키는 것이 종신보험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면 좋겠다. 



삼성생명  정 명인



〈Angel Club〉은

한국 정기간행물 윤리위원회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gel Club〉은 대구FC의 후원단체인 엔젤클럽을 중심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대구FC 및 엔젤클럽 관련 소식을 전하고 교양을 전달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매거진입니다.

〈Angel Club〉을 만드는 사람들

- ▶발행기관 : 주식회사 엔젤클럽(이호경)
- ▶편집인 : 이호경
- ▶편집장 : 김용하
- ▶편집위원 : 강정영, 신성영, 김홍범, 최지수
- ▶포토그래퍼 : 김진홍
- ▶편집디자이너 : 김기대, 김정주
- ▶인쇄 : ㈜케이프린텍(대표 한금재)

접수처 / (주)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aeguangel@naver.com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우표

받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가입 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가입번호		2018 -	
성명 (회사명)	생년 월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소속	E-mail				
주소	추천인				

후원 금액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에 표시해주세요. 대구FC 홈경기입장권 구입비)
☐ 100만원 이상 - ()원	

결제 방법
☐ 자동 이체 [자동이체 납부신청서 p.89 참조]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엔젤클럽 추천 약정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람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하는 “후원 릴레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추천시기	☐ 바로 추천(아래의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을 바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1주일 내 추천(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자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 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내 사항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팩스 송부 : 053)602-7306 ※문의 사항은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구FC 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AUTUMN VOL.1



AUTUMN Vol.1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대구FC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gel Club〉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기고나 사업제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 (주)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aeguangel@naver.com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안내

■ 가입방법

-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입신청서 엔젤클럽 사무국 보관
- ▶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
 - Tel : (053) 602-7307
 - Fax : (053) 602-7306
 - Phone : 010-3861-4505 (대구FC 엔젤클럽 사무총장 : 김중두)

■ 후원금액

- ▶ 대구FC엔젤후원금은 엔젤회원의 의무로써, 대구FC의 재정안정화와 관중증대에 필요한 ‘대구FC홈경기입장권’ 구입비입니다.
- ▶ 100만 원 이상 희망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 후원금 처리방법
 - 후원금은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되고 실제로 입장권이 지급되므로 사업장의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 ※ 참고 : 대구FC는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창단한 시민구단으로, 주식회사 이다보니 상법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결제방법

- ▶ 자동 이체 [자동이체 납부신청서 p.89 참조]
-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헛드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가입 혜택 안내

- ▶ 기념품 : 엔젤클럽 자켓, 머플러, 사인볼(1회)
- ▶ 엔젤회원으로 각종 활동 참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